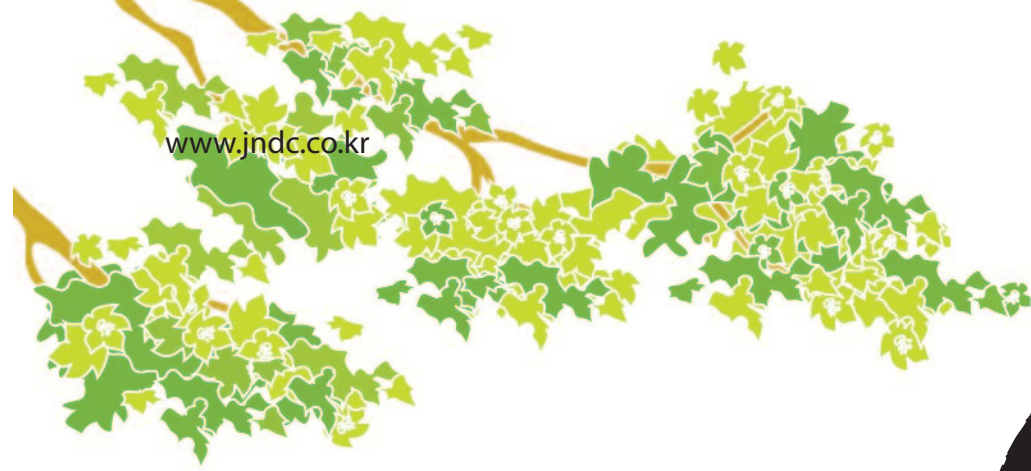


## 남도의 창(窓)

창은 새로운 세상을 보는 통로입니다. 다름을 인정하고, 같음을 발견하는 소통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창이 투명하고 맑을 때 사람은 이전까지 전혀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차원의 세상을 보게 됩니다. 남도의 창(窓)은 어떠해야 할까요? 남도는 오랫동안 낮게 가라앉아 있던 땅입니다. 이제 창조의 수면 위로 올라올 차례입니다. 전남의 미래가치를 만들어내고, 사람들에게 손에 잡히는 꿈으로 전환시켜 보여주는 '창', 그것이 전남개발공사의 소명입니다. 전남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창이 되겠습니다.



[www.jndc.co.kr](http://www.jndc.co.kr)



# 남도의 창

To design Jeon-nam  
2011 Vol.01



# 남도.에서.

백만년을 한결같이 흘러온  
영산강을 따라  
새순같은 희망이 움트는 남도에서  
그대와 함께  
새 아침을 맞이합니다.

월출산을 넘어온 싱그러운 햇살과  
영산강을 타고온 감미로운 바람이  
황금빛으로 물결치는 남도에서  
그대와 함께  
첫 걸음을 내딛습니다.

남도의 새로운 꿈을 위해  
천년을 기다려온 산과 들과 강물이  
용암처럼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가 되어  
그대와 나의 가슴에 파도처럼 일렁일 때  
꽃보다 향기로운 사람들이  
백만년을 살아가는 남도는  
한 송이 찬란한 꽃으로  
피어날 것입니다.

- 문영기 고객맞이팀장 -

# 남도의 창

To design Jeon-nam  
2011 Vol.01



## C.o.n.t.e.n.t.s

04 창간사 전남의 미래가치를 디자인하자

### 열정의 창

- 06 JNDC는 지금 I 여수 아일랜드 골프&리조트
- 10 JNDC는 지금 II F1 두 번째 '무한질주' 시작되다
- 14 제1기 Eco 캐스터 전남의 미래가치를 찾아 떠나는 '행복한 동행길'
- 20 JNDC Focus I 전통과 현재의 아름다운 만남 - 한옥호텔 영산재
- 22 JNDC Focus II 남악신도시, '김대중'을 품다
- 24 JNDC Focus III 소원이 모이는 곳 - 해남, 그 깊은 풍경 속으로
- 26 현장출동 부딪치고·넘어지고·몸이 휘고 모두가 '몸'으로 하나 되다
- 29 JNDC History 우리 이렇게 성장했어요~

### 희망의 창

- 30 우팀소 일도 사랑도 '나이스 셋!' 관광운영팀 '남악골프클럽' 일상이 홍보 무안공항 면세점
- 34 Interview I 시작을 말하다 아쌀하게 거시기 해볼래!
- 36 그녀들만의 세상 일도 생활도 똑 부러지는 여우들
- 38 건강프로젝트 피로야, 가라! 뱃살도 가라!
- 39 JNDC인 톡톡! 나를 화나게·기쁘게하는 사람들
- 42 멘토를찾아서 진짜 피로회복제는 약국에 없다! 두려울 것 없는 "나는야 신입사원"
- 44 나의 하루 평범 속에서 특별함을 넣는 그 하루
- 46 직원 Interview 고객이라면 버선발 마중
- 47 고객 Interview 안정을 버려라!
- 48 Interview II '나' 다움 그 아름다운 집념 - 배우 이한위
- 50 전남의 재발견 시간이 느껴지는 곳 '장흥' 맛있는 여행 '장흥'
- 54 알아두면 좋은 사소한 실천 '부자되는 습관'

To design Jeon-nam 2011 Vol.01  
 발행인 : 사장 김주열  
 발행일 : 2011년 9월 (창간호)  
 발행처 : 전남개발공사 전남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42 (남악리 2074번지) www.jndc.co.kr  
 편집인 : 홍보감사팀  
 기획·디자인 : 나루커뮤니케이션 (T.062-611-5875) www.narucom.co.kr

### 소식의 창

- 55 JNDC news
- 59 분양광고

06

30

55



# “ 전남의 미래가치를 디자인하자!

지금 우리 앞에 제시된 새로운 비전은 '전남의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디자이너'가 되는 것입니다.



### 사랑하는 전남개발공사 가족 여러분!

전남개발공사가 내면에 품은 꿈을 외부에 보여줄 사보를 만들며 저는 '마중물'의 의미를 깊게 떠올립니다. 마중물은 펌프의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 먼저 붓는 한 바가지의 물을 말합니다. 작고 평범하지만 한 바가지 물이 갖는 의미와 가치는 세상 안에서 참으로 크고 소중한입니다.



무형의 가치를 새로운 시각으로 디자인해 모두가 꿈꾸는 유형의 가치로 전환시키는 것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전남개발공사는 2011년을 다시 도약하는 '제2의 도약' 원년으로 삼았습니다. 지금의 도약을 기반으로 2020년에는 매출 5,000억 원 달성을 꿈꿉니다. 지금 우리 앞에 제시된 새로운 비전은 '전남의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디자이너'가 되는 것입니다. 전남은 오래 아껴둔 땅입니다. 맑고 순수한 그 땅이 가지고 있는 무형의 가치를 새로운 시각으로 디자인해 모두가 꿈꾸는 유형의 가치로 전환시키는 것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전남개발공사가 전남 가치 창조의 선두주자가 되기 위해서는 임직원 여러분 모두가 마중물이 되어야 합니다. 한 바가지의 마중물이 펌프의 물줄기를 끝없이 쏟아내듯이 전남개발공사가 꿈꾸는 전남의 미래가치 선도는 어쩌면 마중물 같은 임직원들의 노력과 헌신이 있어야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비록 작지만 모든 것의 시작을 이루는 마중물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전남개발공사가 진행하고 있는 일도 마중물의 의미가 큼니다. 우리는 전남의 심장과 같은 남악 신도시의 모습을 재단하고, 녹색의 땅 전남에 푸른 꿈을 여는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영산호 한옥호텔은 전통과 현대의 만남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합니다. 경도해양관광단지는 여수 엑스포와 연계된 꿈의 영토이고, 천일염은 청정 전남의 깨끗한 자연을 대변합니다.

마중물은 샘 깊은 곳에 들어가 잠자고 있는 지하 깊은 곳의 물을 땅 위로 끌어내 물의 의미와 가치를 지니게 합니다. 조용히 잠들어 있던 전남 땅을 의미 있는 것으로 새롭게 조명하는 일, 그것이 전남개발공사가 품고 있는 마중물의 가장 아름다운 미학입니다.

### 가족 여러분!

우리공사는 내년이 되면 추진했던 대규모 개발사업들의 일부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전남개발공사가 안정적인 기반을 갖추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무엇보다 필요한 때입니다. 전남이 가치 창조의 선두주자가 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개발 아이템을 찾아나서야 하고,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보태져야 합니다.

사람이 하늘입니다. 사람의 마음가짐이 목표를 만듭니다. 전심치지(傳心致志)라는 말이 있습니다. 목표를 향해 오직 한마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성공은 꿈이 있는 자, 도전하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공기업은 공익을 우선의 가치로 삼아야 하고, 민간영역과 불필요한 충돌도 피해야 하는 만큼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고, 그 일을 통해 전남의 미래가치 디자이너가 되는 것이야말로 결코 쉽지 않은 길입니다. 하지만 그 고난의 길 위에 자청해 서 있기를 우리는 갈망합니다. 우리의 꿈이 바로 전남도민의 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꿈이 실현되는 날, 전남도민의 꿈도 실현됩니다.

2011년 9월  
전남개발공사 사장 *가복연*

# Sea Side

## Yeosu Island Golf & Resort

바람에게 길을 묻다!

# 여수 아일랜드 골프&리조트

맑은 바다로 바람이 불어온다. 바다가 거울처럼 맑은 섬, '경도' (鏡島), 바람이 흘러가는 곳이 모두 길이다. 그 섬에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 섬 전체가 해양관광단지가 된다. 섬 하나가 모두 바람에게 길을 묻는 골프장으로 변한다. 지금껏 누구도 시도한 적 없는 꿈, 바다 위의 라운딩. 그 꿈이 경도에서 지금 이루어진다. 바람은 골퍼에게 삶을 가르쳐준다. 바람을 잘 읽어야 공을 원하는 곳에 보낼 수 있다. 여수 아일랜드 골프&리조트를 돌아보면 모두 바다가 눈에 담긴다. 바다의 숨결을 느끼며 호흡을 고르고, 바람이 흐르는 길에 귀를 기울인다. 라운딩을 넘어 인생의 길을 묻는 곳, 경도. 호쾌한 스윙 속에 다도해가 담긴다.



골프는 기본!

아름다운 바다 풍경은 덤!

골프를 치다가 고개를 돌리면

거기, 바다가 핀다.



麗水鏡島



바다에 안긴 아름다운 '섬'

저 멀리 수평선이 하늘과 만난다. 모든 게 푸르다. 하늘도 푸르고, 바다도 푸르고, 섬도 푸르다. 섬의 언덕 위에 그림 같은 집이 지어진다. 100실 규모의 콘도미니엄, 객실에서는 골프코스과 바다를 동시에 조망할 수 있다. 객실의 너른 창으로 먼저 푸른 코스가 가득차고, 눈이 골프코스를 벗어나면 더 깊고 넓은 바다에 닿는다. 마음까지 푸른 기운이 가득 차오른다.

여수 아일랜드 골프&리조트는 국내 최초로 섬 전체가 하나의 해양복합리조트로 탄생한다. 콘도 100실에 추가로 2016년까지 다양한 평형대의 200실 규모 골프빌라가 조성된다. 기업연수원과 테마파크, 호텔, 다양한 상업시설도 건립된다. 신재생 에너지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지형과 해안선을 살린 자연친화적 해양리조트가 바로 여수 아일랜드 골프&리조트다. 특히 경도는 바람이 없고 따뜻해서 사계절 해양레저가 가능한 명품 휴양지다.

여수 아일랜드 골프&리조트에는 오토캠핑장도 만들어진다. 요즘은 가족이나 연인과 함께 떠나는 오토캠핑이 여행의 대체다. 눈앞이 확 트인 바다에서 파도소리를 들으며 잠을 청할 수 있는 경도의 오토캠핑장, 도시생활에 찌든 피로가 한방에 날아간다. 오토캠핑장은 모두 100대 규모, 바다를 배경으로 아름다운 '섬'이 높다. 캠핑장 앞 바다는 갯벌체험장이 된다. 3만㎡ 넓이의 오토캠핑장은 내년 5월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바다 위의 휴식은 아름답다. 조용한 밤, 사람의 내면으로 흘러 들어오는 파도소리가 지금 주인을 찾는다.

그 섬에 바다가 핀다

모든 배경은 바다다. 경도 면적의 70%를 골프장이 차지한다. 모두 27홀, 바다를 거슬러 올라오는 바람 위에서 공이 날아가는 길을 찾는다. 대한민국에서 지금껏 이런 시도는 없었다. 골프는 기본이고, 아름다운 바다 풍경은 덤이다. 섬 하나가 모두 아름다운 골프 코스다. 골프를 치다가 고개를 돌리면 거기, 바다가 핀다.

27홀 전체가 바람에게 길을 묻는 '시 사이드(Sea Side)'다. 골프장은 자연의 숨결이 그대로 스민 프리미엄급 코스다. 스윙 속에 마음의 휴식이 깃든다. 코스는 무엇을 상상하건 그 이상을 보여주는 환상의

영역, 그 자체다. 바다와 숲을 넘나드는 파인코스, 완만한 구릉과 다도해를 배경으로 정확한 거리를 요구하는 힐코스, 바다와 동행하며 인생의 길을 찾는 오션코스가 조성된다. 해양을 횡단하는 홀도 3개나 된다. 세계적인 코스설계 회사인 DMK골프디자인이 이전까지 세상에 없었던 작품을 만들었다.

누구나 그 바다의 주인이 될 수 있다. 여수 아일랜드 골프장의 회원권은 9월부터 분양이 시작된다.



# FORMULA 1™

## KOREAN GRAND PRIX YEONGAM



### F1 두 번째 ‘무한질주’ 시작되다!



#### 대한민국 최초 명품 경주장

세계 3대 스포츠축제인 F1자동차경주대회. 경기의 평균 관객은 20만 명이 넘고, 전 세계 6억 명이 시청을 한다. 세계의 눈이 지금 영암을 주목하고 있다. 거기 대한민국 최초의 국제 자동차 경주장인 ‘영암 국제자동차 경주장’ 이 있다.

영암 경주장에 새로운 묘미가 있다. 트랙의 주행 방향이 흔치 않은 시계 반대 방향이다. 2011년 F1 캘린더에는 20개 경주장이 올라 있다. 시계 반대 방향 트랙은 불과 5개뿐이다. 모든 드라이버는 시계방향 주행에 익숙하다. 익숙함을 깨는 반전, 그것이 드라이버와 관객 모두에게 극한의 흥미를 던져준다.

영암 경주장은 스피드의 절정을 눈으로 확인시킨다. 첫 번째 트랙을 돌고나면 모든 머신은 가속 페달을 밟는다. 상설구간까지 가는 직선 트랙의 길이는 1.2km, 이 구간에서 머신은 최고시속 320km를 돌파한다. 영암 경주장은 FIA(국제자동차연맹)에서 공인한 그레이트 A급 경주장이다. 최고의 시설은 또 절정의 풍경과 몸을 쉬는다. 트랙 남단의 마리나 구간은 영암호를 품고 있다. 아름다운 물빛 정경이 속도와 어우러진다.

# KOREAN GRAND PRIX - YEONGGAM



## 크게 낮춘 입장료

영암을 뜨겁게 달군 포뮬러원(F1) 코리아 그랑프리 두 번째 질주가 이제 곧 시작된다. 올해 F1은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 동안 영암군 삼호읍 삼포리 간척지에 들어선 영암 경주장 (KIC · Korea International Circuit)에서 열린다.

티켓 구매는 지난해처럼 F1홈페이지(www.koreangp.kr), 인터파크(www.interpark.co.kr), 농협, 광주은행 등에서 할 수 있다. 티켓 구매 활성화를 위해 관람객들의 선택의 폭을 넓혔다. 지난해에는 대회 3일 모두를 관람하는 '전일권'만 판매했다. 그러나 올해는 전일권과 토요일권, 일요일권 등 3종류로 구분해 판매하고 있다. 좌석도 골드와 실버로 나뉘던 메인그랜드스탠드를 하나로 합치고 그랜드스탠드도 4종으로 단순화했다.

티켓 가격도 크게 낮췄다. 지난해보다 평균 30% 가량 값을 내렸다. 특히 초기 구매자들에게는 할인 폭을 50%까지 높여줬다. 메인그랜드스탠드 전일권 최고가는 89만 원, 최저가는 18만 원, 주력 티켓 가격대는 38만 원 정도로 정해졌다.

## 개선된 교통과 숙박

올해 F1은 편안한 관람이 가능하다. 교통과 숙박 문제가 크게 개선됐다. 영암 F1경주장을 중심으로 광주·전남권 이용가능 객실이 3만8000여 개(1인2실)에 달해 일반 관람객 6만 여 명을 수용하기에 충분하다. 고급숙박시설도 9곳 626실을 확보했고 크루즈 여행상품도 활용이 가능하다.

교통체증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목포에서 영암으로 넘어오는 하구연 교통량의 40%를 곧 개통하는 국도 2호선 대체우회도로로 분산시킬 방침이다. 또 대회기간 동안 고속버스와 시내버스가 경주장까지 연장운행한다. KTX 등 임시열차 증편도 현재 협의가 진행중이며 인천공항과 무안공항을 잇는 임시항공노선도 협의하고 있다.

### 국제규정 신호기 해설

 <p><b>스타트기</b> 동상의 국기, 일반적으로 국제대회에서는 자국의 국기를 스타트기로 사용한다.</p>	 <p><b>신호등</b> 출발 5초 전에 적색등이 들어왔다가 4~7초 사이에 적색등이 꺼지면 레이스가 시작된다.</p>	 <p><b>체커기</b> 경기종료를 뜻하며 메인 포스트에서 발령한다.</p>
 <p><b>흑색기</b> 패널티 경주자에 대하여 참가번호와 함께 표시, 이때 해당 경주자는 즉시 피트인해 오퍼셜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p>	 <p><b>흑백반기</b> 스포츠맨십이 결여된 행위를 한 선수에 대한 경고이며 참가번호와 함께 표시</p>	 <p><b>오렌지불기</b> 경기중인 경주자에 트러블이 생긴 경우 참가번호와 함께 표시, 이때 해당 경주자는 즉시 피트인해야 한다.</p>
 <p><b>황색기</b> 사고발생을 알리는 것발, 위험, 추월금지 및 서행표시로 이 것발 등이 제시되는 경우는 중시 가능성을 알리는 표시</p>	 <p><b>적색기</b> 경기중단을 의미, 이때 모든 경주자는 서행을 해야하며 경기규칙에서 지정된 위치로 이동한다.</p>	 <p><b>백색기</b> 코스에 장애물(운영요원, 구조차, 서행 경주자, 앰블런스, 백카 등)가 있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발</p>
 <p><b>청색기</b> 추월차가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발, 뒤에서 빠른 경주차가 접근중임을 표시한다.</p>	 <p><b>황적줄무늬기(이개)</b> 노면이 미끄러지기 쉬운 상태로 주의를 하라는 표시다.</p>	 <p><b>녹색기</b> 포메이션랩 때 스타트 신호기로 사용하며 모든 위협의 해제를 알린다.</p>

전남의 미래가치를 찾아 떠나는  
‘행복한 동행길’  
‘2011 녹색전남 생태&문화 탐방’



Eco캐스터 여러분 잘다녀오세요~

발대식 - 위촉장 수여

1기 Eco캐스터 '행복한 동행길'

학생들이 걷는다. 길이 말을 건넨다. 학생들은 그 길 위에서 이전까지 전혀 몰랐던 세상을 만난다.

전남의 길 위에서는 늘 삶이 피어난다. 길은 언제나 스스로 깊어져서 사람을 생각의 숲으로 이끈다. 길의 깊이가 가장 아름답게 피어나는 땅이 전남이다. 매일 새로운 가치들이 피어나는 전남의 길, 길과 사람의 관계는 늘 깊다.

8월 8일부터 8월 10일까지 3일 동안 전남개발공사(이하 공사)가 지역의 청소년들과 함께 걷는 행복한 동행을 꿈꿨다. 그 이름, '2011 녹색전남 생태&문화 탐방'이다. 공사가 창사 이후 처음 진행하는 문화행사였다. 공사는 왜 첫 문화행사의 테마를 '동행'으로 잡았을까? 함께 걷는 길 위에서는 언제나 희망이 핀다. 세상에 혼자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함께 걷는 길 위에서 같은 꿈을 꾸고, 같이 생각하는 행복한 동행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공사는 안다.

사실 전남은 사람들이 그 가치를 제대로 발견하지 못했

을 뿐 아주 행복한 땅이다. 발 딛는 곳마다 전통을 잇는 문화유산이 넘치고, 아름다운 자연 생태환경이 발아래 놓인다. '2011 녹색전남 생태&문화 탐방'은 전남의 깊이를 지역의 청소년들과 발견하기 위해 떠나는 빛나는 동행이다.

**'Eco 캐스터'를 아시나요?**

'2011 녹색전남 생태&문화 탐방'에 참여한 학생들은 'Eco 캐스터'로 명명됐다. 어떤 의미일까? 'Eco 캐스터'는 자연·생태환경을 의미하는 뜻을 지닌 Ecology의 'Eco'와 프로그램의 진행자나 해설자의 의미로 사용되는 '캐스터'의 합성어다. 그러니까 녹색전남의 자연 상태와 문화관광지를 함께 탐사하는 아름다운 동행의 길 위에서 느낀 것을 여러 사람들에 전달하는 전달자가 되는 것이다.

사실 '2011 녹색전남 생태&문화 탐방'에 참여했던 청소



생태도감 만들기

생태도감

우수 생태도감 시상 및 관람

년들이 처음부터 큰 기대를 했던 건 아니다. 2박 3일 탐방을 마치고 전남을 보는 눈이 많이 달라졌다.

“처음엔 2박 3일 동안 어떻게 보낼까, 걱정이 앞섰어요. 하지만 전남개발공사에서 준비한 갯벌체험과 차 마시는 법, 녹차 피자 만들기, 해남 공룡화석 박물관, 생태도감, 염전체험을 하고 나서 생각이 변했어요. 내가 사는 전남이 이렇게 아름다운 곳인지 처음 알았고, 다음에도 이런 행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꼭 참가하고 싶어요.” 탐방에 참여한 황은성(순천 매산중학교 3학년) 학생의 말이다.

짧은 3일의 경험을 통해 'Eco 캐스터'들은 전남 땅의 소중한함과 가치를 알았다. 핵심은 '전달'이다. 전남의 진정한 가치를 알고, 그 의미를 주변에 전달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전남의 새로운 꿈은 이루어진다. 'Eco 캐스터'들은 녹색의 땅 전남에 푸른 꿈을 열고 풍요로운 삶을 개척하려는 공사의 영원한 동반자들이다. 때문에 전남의 미래를 아름답게 이끌어갈 청소년들로 'Eco 캐스터'가 구성됐다.



체험을 통해 발견하는 전남의 가치

첫날부터 참여한 학생들은 신이 났다. 두륜산에서 '숲의 보물'을 찾았다. 숲에는 어떤 보물들이 숨겨져 있었을까? 숲을 이루는 모든 나무와 식물, 들꽃들이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보물이었다. 학생들은 숲을 거닐며 자기 손으로 직접 '생태도감'을 완성했다. 동백나무와 편백나무 잎을 구별해 찾아보고, 깨끗한 물에서만 사는 민물가재를 찾아 함께 사진도 찍었다. 무엇보다 생태훼손 현장의 사진을 찍으며 자연의 소중함을 마음에 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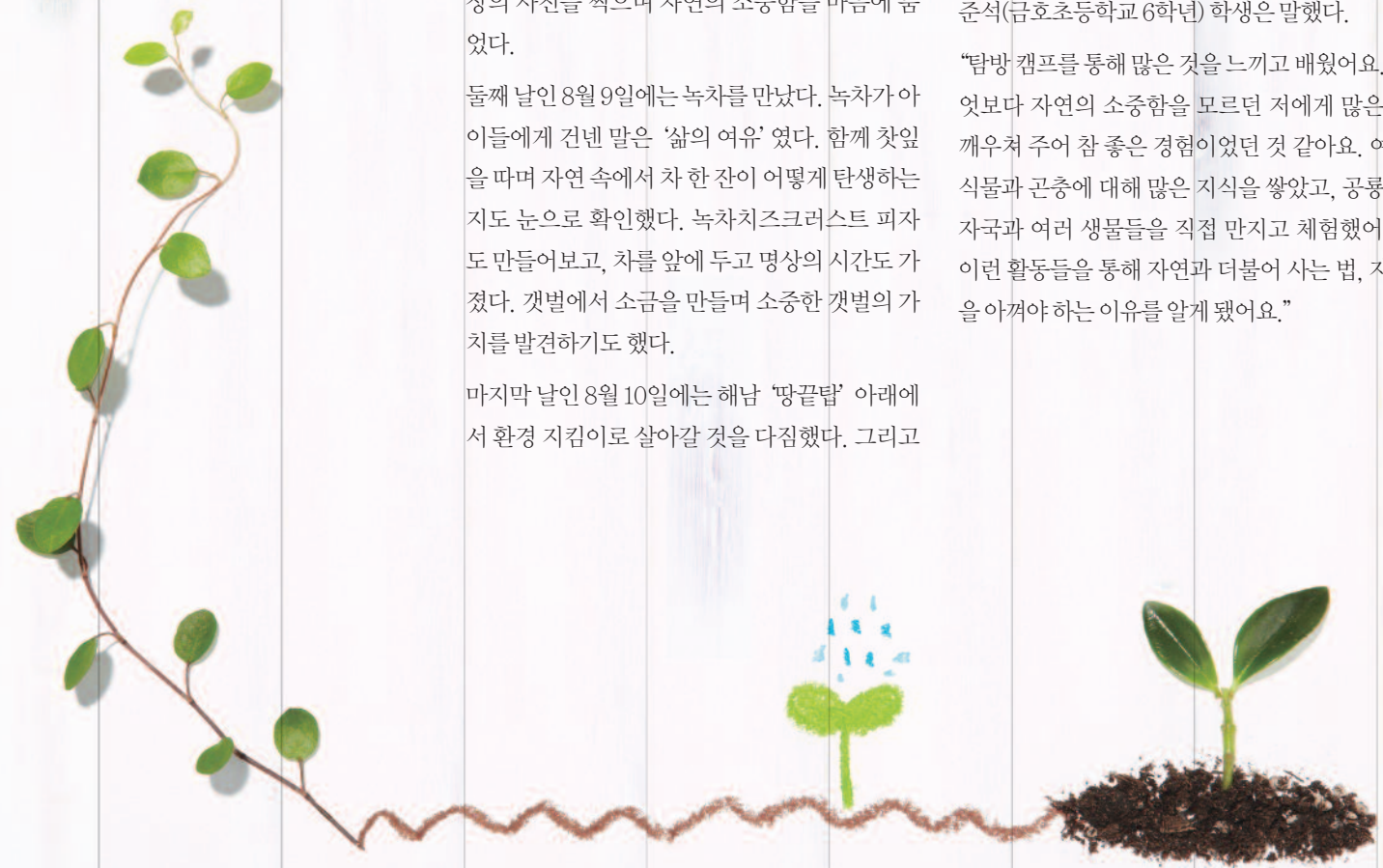
둘째 날인 8월 9일에는 녹차를 만났다. 녹차가 아이들에게 건넨 말은 '삶의 여유'였다. 함께 찾았을 따며 자연 속에서 차 한 잔이 어떻게 탄생하는지도 눈으로 확인했다. 녹차치즈크러스트 피자도 만들어보고, 차를 앞에 두고 명상의 시간도 가졌다. 갯벌에서 소금을 만들며 소중한 갯벌의 가치를 발견하기도 했다.

마지막 날인 8월 10일에는 해남 '땡꼬탑' 아래에서 환경 지킴이로 살아갈 것을 다짐했다. 그리고

이순신 장군의 업적도 되새겼다. 나라를 지키기 위한 장군의 열정은 바다보다 크고 위대했다. 학생들은 환경정화활동도 펼치고 F1 경기장도 체험했다. 경기장 안에서는 세계 속에 우뚝 선 전남의 현재를 발견했다.

3일 동안 진행된 '녹색전남 생태&문화 탐방'은 무척 행복했고, 전남의 새로운 미래 가치를 발견한 행복한 동행의 길이 되었다. 탐방에 참여한 김준석(금호초등학교 6학년) 학생은 말했다.

"탐방 캠프를 통해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웠어요. 무엇보다 자연의 소중함을 모르던 저에게 많은 걸 깨우쳐 주어 참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 식물과 곤충에 대해 많은 지식을 쌓았고, 공룡 발자국과 여러 생물들을 직접 만지고 체험했어요. 이런 활동들을 통해 자연과 더불어 사는 법, 자연을 아껴야 하는 이유를 알게 됐어요."



F1경기장을 가대!

피자만들기 도전!

공룡박물관에 가대!

Eco 캐스터 '화합의 밤'

폴임으로 피리를~

전통체험, 얼썬!

염전풍차체험!

울돌목 거북선타고 승승!!!



## 제1기 Eco캐스터 체험수기.



황재연  
(순천제일고등학교 2학년)

올 때 생각은 그냥 그저 그렇겠지...라고 생각하며 왔는데 정말 반전!! 이렇게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이 될 줄 몰랐다. 중대원으로 나뉘어 모르는 사람들과 협동하며 단체생활을 해야하니 정말 불편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것 또한 잘못된 생각이란 걸 금방 깨닫게 되었다. 비록 3일밖에 안되는 시간이었지만 5중대원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나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고, 이런 만남을 갖게 해준 캠프가 고마웠다. 자연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내가 알지 못하였던 많은 식물, 동물에 대한 지식을 알려주신 선생님들께서 아주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

주시고 느끼게 해주셔서 지식들이 나의 머릿속에 쑥쑥 들어갔다. 대장님들도 정말 좋은 분들이라 더욱 즐겁고 재미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것 같다. 모든 체험 하나하나 모두 즐겁고 유익하였고 행복했다. 내년에는 고3이라 참여할 수 없을 수도 있지만 기회가 된다면 꼭 참여하고 싶다. 겨울에도 겨울만의 매력과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있으니 겨울에도 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다. 이를 내내 버리는 시간 없이 모두 알차고 즐거운 시간이라 좋았다. 지인들에게 꼭 추천하고 싶은 캠프이다.



김예진  
(여수무선중학교 2학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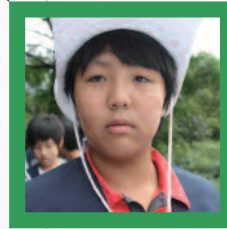
부모님의 권유로 2011 녹색 전남 생태&문화탐방 캠프에 참여하게 되었다. 일정표를 보고 재미있을 것 같은 프로그램들이 많아서 기대도 했지만 낯선 친구들을 만난다는 생각에 걱정이 앞서기도 했다. 하지만 그럴 필요까지는 없었다. 첫날은 다들 어색해하고 말도 잘 안했지만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통해 서로 알아가며 가까워질 수 있었다. 조금 가까워지니 캠프가 더 재미있게 느껴졌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것을 깨닫고 알 수 있었다. 답답한 도시에서 살다가 자연과 함께하니 익숙하진 않았지만 자연과 더 가까워질 수 있었던 것 같다. 깨끗한 숙소에서 맛있는 밥을 먹으며 우리 중대원들과 친해졌지만, 다른 중대원들과는 친해지지 못해서 아쉽기도 하였다. 재밌는 일들이 많아서인지 2박 3일이 너무나도 짧게만 느껴졌다. '대원들과 친해진지도 얼마 안됐는데 벌써 마지막 밤

이라니' 라는 생각뿐이었다. 서로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을 만나 친해지고 같이 경험을 한 것이 나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다. 먼저 말도 못 붙이고 소극적인 나에게 이번 캠프가 많은 깨달음을 남겨주었다. '갯벌체험, 피자 만들기' 등의 체험은 살아가면서 하지 못했을 수도 있는 것을 체험하게 해준 것 같았다. 지금 모든 대원들과 내가 Eco캐스터 1기라는 것도 뭔가 특별한 것 같고 우리를 위해 힘써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고 벌써 헤어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 정말 아쉽지만 이를 동안 많은 경험을 하고 깨닫고 갈 수 있는 것이 많은 것 같아서 여기에 참가하기 정말 잘한 것 같다고 느꼈다. 많은 학생들에게 2011 녹색 전남 생태&문화 탐방 캠프를 추천해 주고 싶다.



이가경  
(남약중학교 3학년)

캠프에 오니 정말 재미있고 새로운 친구들(언니, 동생...)을 사귀어 너무나도 즐거웠다. 미션수행을 하면서 모기에게 물리고, 계곡에 들어가서 물에 빠지고, 갯벌에 들어가고, 공룡박물관에도 갔다 오는 등, 조금은 힘이 들고 지쳤지만 그래도 내 기억 속에 남을 것 같다. 미션수행 중 제일 재미있었던 일은 아침부터 가서 피자를 만드는 것이다. 차를 3모금 마시고 차에 대해 알게 되어 매우 흥미로웠다. 다음에 또 Eco캐스터가 2기를 한다면 다시 한번



김영후  
(남약초등학교 6학년)

두륜산 생태체험을 통해 나무와 곤충, 꽃들의 유래 등 여러 가지 내용을 듣고, 잎을 이용해 피리와 배접기, 삼나무와 편백나무 구별 방법도 배웠다. 우리 대원들끼리 당당하게 가재를 잡았는데 나는 덩치가 크고 몸집도 좋아서 가재를 그냥 잡아먹을 것 같은데 덩치와 다르게 전체 Eco캐스터 대원들과 대장님들은 가재를 잡으려고 애를 쓰고 난 아무리 잡고 싶어도 무서워서 잡지 못하여 창피하고 속쓰러웠다. 그리고 대장님들끼리 노래를 듣고 대원들끼리 단합하여 만든 생태도감 시상식도 하였다. 그리고 대구 대장님의 목소리가 재밌고 억양이 너무 듣기 좋은 사투리라서 너무 좋았다. 그리고 녹차 예절을 지키며 녹차 설명도 듣고 예절도 배우고 녹차 맛도 정말 좋았다. 그리고 대원들끼리 녹차 치즈 크리스트 피자 직접 만들어 먹어보고 또 갯벌체험에 가서 재밌게 놀고 싶었는데 느낌이 살짝 더러워 구경만 하고 꽃게들도 관찰하였다. 또 염전에 가서 인상 깊은 염전체험 송도 듣고, 물



갯벌 서바이벌



눈을 감고~ 우리는 수련중!!!

오고 싶다. 그리고 내가 1기여서 너무 좋다!! 마지막으로 내가 Eco캐스터에 1기로 들어와서 정말 좋았고, 2기 때는 주변에도 추천을 해주고 싶다. 정말 재미있었다!! 우리 5중대 '이지연 대장님!' 2박 3일 동안 감사합니다. Eco캐스터 2기 추천! 강추!!

레방아도 봤다. 그리고 너무 신기했다. 최고급 호텔에 와서 구경도 하고 뷔페도 먹어보았다. 그리고 저녁에 깨끗이 씻고 해남땅끝호텔 3층에 모여서 재밌는 레크레이션도 했다. 그런데 정말 승부욕이 넘쳐났으나 우리 중대가 꼴등해 버리고 말았다. 그리고 윤성이가 녹차 크리스트 피자 반 판 먹고 야식으로 치킨을 너무 많이 먹어서 나보다 더 먹는 것이 너무나 신기했다. 그리고 내가 이 '2011 녹색 전남 생태&문화 탐방 캠프' 제 1기 Eco캐스터가 되어 환경의 소중함을 깨닫고 환경의 중요성도 알게 되어서 기쁘다. 예전엔 나무나 꽃들의 중요성을 생각하지도 않았었는데, 이 Eco캐스터를 경험하면서 중요성도 알게 되고 꽃이나 나무의 이름, 유래를 듣고 생각해 보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이렇게 Eco캐스터가 되어서 내가 모르던 소중한 세상을 알게 된 것 같아 너무 영광스럽다.

# 전통과 현재의 아름다운 만남

## 한옥호텔 영산재



우리의 전통 문화는 무조건 낡은 것일까? 전통과 현재의 아름다운 만남은 과연 현실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일까?

무수히 반복됐던 이 질문에 대한 특별한 답이 있다. 전남개발공사가 영암군 삼호읍에 짓고 있는 ‘영산재’가 그 답이다. 형태가 아주 독특하다. 전통인 한옥과 현대적 숙박의 결정체인 호텔이 아름답게 만났다. 영산재는 한옥호텔이다.

1999년 4월 영국여왕 엘리자베스 2세는 73세 생일상을 안동 하회마을에서 받았다. 여왕의 선택은 의외였다. 여왕은 왜 하회마을을 택한 것일까? 여왕이 하회마을 방문한 이유는 그곳에 가장 한국적인 것들의 매력이 섬세하게 살아있기 때문이었다.

흙과 나무, 기와로 만들어진 전통 한옥의 정취에 묻혀 여왕은 한

국 방문 일정에서 가장 행복한 하루를 보냈다. 영국여왕 엘리자베스 2세가 안동을 택한 건 친환경적인 가옥형태인 한옥 때문이다.

한옥의 뼈대를 그대로 이어받은 새로운 형식의 호텔은 세계의 관광객들에게 충분히 매력적인 상품이다. 한옥은 사실 우리에게 특별한 무엇이 아니다. 우리의 몸이 나온 곳이 거기다. 남의 것(아파트)이 주인이 되고, 원래의 집이 객의 형태로 밀렸으나 생활이 바뀌었다고 정신까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한옥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오랜 거처다. 안과 밖이 통하고, 몸과 영혼이 엮이는 집이 한옥이다.

그러나 한옥은 생활하기에 불편한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다. 옛것의 단점을 극복하고, 현대적인 방식의 장점을 극대화시킨

전혀 새로운 개념의 발상이 한옥호텔 영산재의 빛나는 출발점이다.

한옥호텔 ‘영산재’는 한옥 숙박 전용단지로는 전남에서 처음 조성되는 곳이다. 일단 외관이 아름답다. 한옥 객실이 21실인데, 대규모 한옥마을의 형태다. 품도 넓어 연립형 숙박동과 별채 형식의 독립형 숙박동이 함께 조성되고 있다. 이용객의 선호에 따라 선택의 폭이 넓은 것이다.

겉은 분명히 선이 아름다운 한옥이다. 그러나 한옥의 내부는 고급호텔이다. 특히 한옥정자와 돌을 쌓아 만든 담도 구성해 한옥의 멋을 한껏 느낄 수 있다. 역사와 문화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국내의 관광객들에게는 전통문화 교육의 공간이 된다. 또 외국

관광객들에게는 우리의 전통한옥을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 되는 셈이다. 한옥호텔 ‘영산재’ 안에는 다양한 부대시설도 마련돼 편리한 이용이 가능하다. 한식당과 체험관, 세미나실, 전통 혼례식장 등이 갖춰진다.

무엇보다 ‘영산재’는 주변에 변변한 숙박시설이 없어 고심하던 F1코리아그랑프리대회에 오랜 고민을 해결한다. ‘영산재’는 영암 F1경기장 바로 곁에 있다. 한옥호텔 ‘영산재’는 2011년 9월 23일 다문화 가정 및 저소득층 5쌍을 선정, 전통혼례식과 함께 개관식을 갖는다. 전통과 현재가 아름답게 손을 맞잡는 광경이 이제 곧 눈앞의 현실이 된다.



# 남악신도시, 김.대.중.을 품다 전남의 새로운 심장

故김대중 전 대통령. 그가 오른손을 들고 왼손에는  
고난과 역경의 상징인 지팡이를 짚고 거기 서 있다.  
2010년 8월 12일, 무안 남악신도시 전남도청 앞 광장에  
김대중 전 대통령 동상이 세워졌다.  
그 순간 광장의 이름도 '김대중 광장'으로 바뀌었다.  
그는 전 생애를 통해 민주를 실천한 몇 안 되는 사람이었다.  
지금 우리가 이만큼의 세상에서 살 수 있는 이유 중  
가장 많은 부피를 차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아마도 김대중 전 대통령일 것이다.



##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

동상은 청동소재를 사용해 만든 것으로  
높이 6.3m(좌대 2m, 동상 4.3m) 크기다.  
짚고 있는 지팡이가 인상적이다. DJ지팡  
이는 군부독재에 항거하다 모진 고초를  
당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고난과 역경의  
삶을 그대로 상징한다.

남악 신도시 김대중 광장, 그의 동상 앞에  
서면 마음이 숙연해진다. 동상의 이름부  
터 깊다. 동시대 김왕현 교수가 제작한 동  
상의 이름은 ‘인류의 평화-김대중’이다.  
동상의 좌대를 보면, 김대중 대통령의 평  
생의 소신이 적혀 있다. ‘행동하는 양심-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

그는 자신의 소신을 평생 지키고 살았다.  
그는 한국 정치의 살아있는 증인이었고,  
꺼지지 않는 현재였다. 1972년 유신이 선  
포됐을 때 일본과 미국에서 망명 생활을  
하며 그는 반유신 투쟁을 펼쳤다. 1973년  
일본 동경에서 중앙정보부 요원들에게 납  
치돼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민주화 투  
쟁의 살아있는 신화로 되살아났다. 그의  
말 한 마디에 세상은 깨어나기도 했으며  
같이 웃고 같이 싸웠다.

## 전남의 새로운 심장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동상은 왜 남악신도시  
전남도청 앞 광장에 세워 졌을까? 지난해  
8월 12일, 동상이 세워지던 날. 제막식에

참석했던 이희호 여사는 이렇게 말했다.  
“내 남편은 항상 고향 사람들의 은혜를 입  
었다고 강조했다. 이곳이 남편이 남긴 민  
주주의와 평화의 노력을 회상하는 명소가  
되길 바란다.” 이희호 여사의 바람대로 김  
대중 전 대통령의 동상이 세워진 김대중  
광장은 전남의 명소가 됐다.

신안 하의도에서 태어난 김대중 전 대통  
령은 전남의 상징이었다. 남악신도시는  
전남도청이 자리 잡은 전남의 새로운 심  
장이다. 고향 땅의 중심에서 김대중 대통  
령은 여전히 민주주의와 평화를 외치고  
서 있다.

허허롭던 남악신도시도 이제 전남의 새로  
운 중심으로서의 위용을 빠르게 갖춰 나  
가고 있다. 남악신도시 건설은 무려 20년  
이 걸리는 대역사다. 특히 한옥으로 지어  
진 전남도지사 공관 주변에 고급 전통가  
옥으로만 구성된 ‘한옥마을’도 만들어지  
고 있다. 전남의 중심에서 전통의 숨결이  
한옥의 형태로 살아 숨 쉬는 것이다. 아파  
트 단지와 전통 한옥의 결합, 남악신도시  
는 전통과 현대가 아름답게 손을 맞잡는  
도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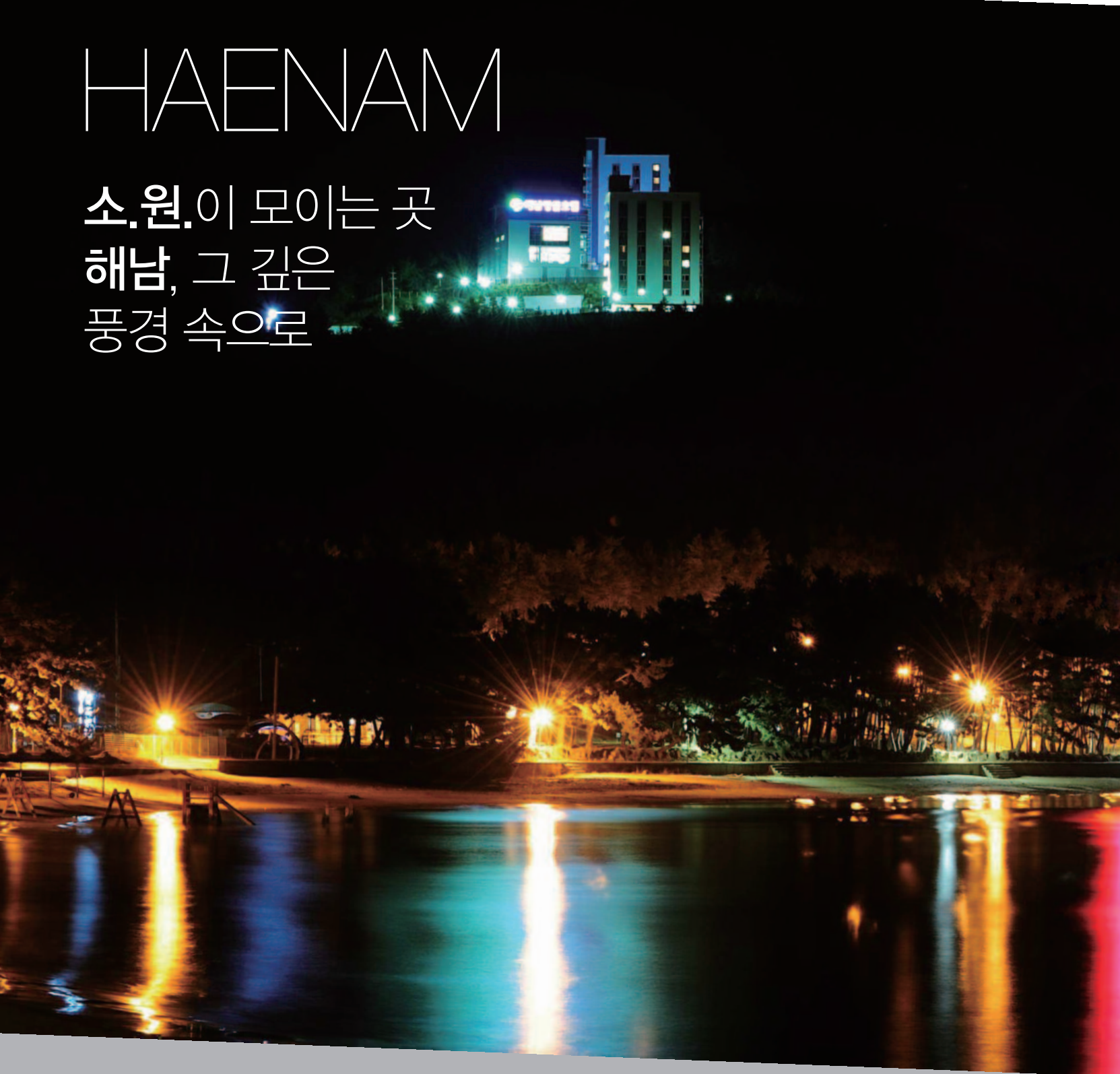
남악신도시는 모든 계획이 완료되면 15만  
명이 함께 사는 행정도시가 된다. 그렇게  
남악신도시는 전남 사람들이 함께 생각하  
고, 함께 숨을 쉬며, 함께 미래를 꿈꾸는  
도시로 거듭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동  
상이 거기 세워진 궁극의 이유다.



- ① 김대중광장 제막식
- ② 김대중광장 포토존
- ③ 남악신도시 전남도립도서관
- ④ 남악신도시 한옥전용단지

# HAENAM

소.원.이 모이는 곳  
해남, 그 깊은  
풍경 속으로



## 시작과 끝이 만나는 곳, 땅끝

해남은 많은 소원들이 아름답게 모이는 땅이다. 거기 한반도 육지 땅의 끝이 있다. 끝은 묘하게 새로운 시작과 통한다. 하나가 끝나면 무언가를 다시 시작하기 마련이다. 사람들은 마음 속에 새로운 삶을 품으려 할 때 소원 하나를 들고 땅끝에 간다. 1986년부터 그런 발길이 땅끝으로 이어졌다. 그때 해남군이 땅끝 해발 156.2m의 사자봉에 봉화대를 복원하고 전망대를 세웠다.



지금은 1년이면 3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땅끝에 온다. 만약 새해 첫 날이라면 발 디딜 틈이 없다. 소박한 해변 마을의 잔잔한 풍경은 사라졌지만 명소의 느낌이 살아났다. 그곳에서 보는 해는 언제나 많이 특별하다. 해가 떠오르는 풍경도 아름답지만 느끼는 마음이 다르다. 땅 끝은 끝이면서 시작인 땅이다.

이제 땅끝이 더 특별해졌다. 지는 해를 편안하게 앉아서 볼 수 있다. 해남의 아름다운 자연이 '해남땅끝호텔'에 묻혀 있다. 하늘과 맞닿을 듯 높은 곳에 자리 잡은 땅끝관광호텔은 객실이 아름다운 풍광을 내려다보는 전망대가 된다. 편안하게 앉아 땅끝의 내면 같은 풍경을 조망할 수 있다.

객실에서 보면 곧바로 송호해수욕장이 보인다. 다도해의 숨막히는 바다가 거기 있다. 일출과 일몰을 동시에 볼 수 있고, 북쪽으로 시선을 돌리면 병풍처럼 둘러쳐진 달마산이 보인다. 창문만 열면 바다의 향기가 곧바로 밀려온다. 연회장과 회의실도 마련돼 있는데, 바다가 텅

저주는 희망 위에서 새로운 계획을 설계할 수 있다.

특히 땅끝관광호텔은 가족이 함께 떠나는 남도여행의 맞춤형 숙소다. 무수히 많은 문화유적과 체험 관광지가 땅끝관광호텔의 이웃이다. 우왕리 공룡박물관, 명량해전지, 송호해변, 땅끝관광지, 보길도, 달마산, 두륜산도립공원 등 남도의 명소들에 호텔이 둘러싸여 있다. 오솔길 산책이나 갯벌체험, 농촌체험도 경험할 수 있다.

## 나라를 지키는 소원, 우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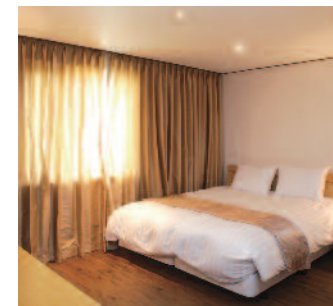
해남 우수영에는 400년 전 한 사내의 소원이 아직 살아있다. 이순신은 해남의 바다에서 숨이 끊어지기 직전의 조선을 구한다. 단순하게 설명될 성질의 것은 아니지만 이순신은 일종의 모함을 받고 의금부에 투옥됐다. 장군은 옥에 갇혀 28일 동안 죽지 않을 만큼 문초를 당한 뒤에야 풀려났다. 죽음의 자리를 빠져나와 그는 다시 죽음의 자리에 선다. 그 사지는 해남과 진도 사이의 비좁은 해협, 울돌목이었다.

명량에서 이순신 장군은 애초에 살려고 하지 않았다. 그는 이미 다 잃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다. 자신의 바다를 잃고 군사도 잃었다. 전선을 잃고 어머니를 잃고 한낱 병사의 몸으로 백의종군했다. 명량에서의 전투가 있기 직전 다시 삼도수군통사에 올랐지만 허울뿐이었다. 그가 가진 배는 13척이 전부였고, 군사는 겨우 2,000명이었다. 다만 그는 죽음과 삶이 거센 물살로 얽혀있는 명량의 바다 속으로 걸어 들어가 한줄기 외로운 일자진을 뿔고, 결국 이겼다.

명량대첩의 역사를 몸으로 직접 체험할 수도 있다. '울돌목 거북선'은 거북선형 유람선이다. 길이 49m, 폭 10m로 성인 170명, 어린이 340명을 태울 수 있다. 해남 우수영에서 진도 벽파진까지 역사의 바닷길을 왕복한다.



해남땅끝호텔 비어가든



해남땅끝호텔 객실



울돌목거북선

# 부딪치고 · 넘어지고 · 몸이 휘고 모두가 '몸'으로 하나 되다 전남개발공사 7번째 생일



# 前進

2011년 6월, 단 하루뿐인 특별한 날이 열렸다. 전남개발공사의 일곱 번째 생일, 모든 가족들이 몸으로 만나 '한마음'이 되는 날이다. 이름하여 '한마음 전진대회'다. 지금껏 모든 직원과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인 날은 없었다. 열외가 없는 체육행사다. 모든 직원이 최소한 한 종목에는 참여해야 한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모두가 참여해 몸으로 소통하고,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몸의 부대낌을 통해 서로 같음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한마음 전진 대회에 담긴 아름다운 철학이다. 공을 놓고 부딪치고, 넘어지고, 몸이 휘면서 모두들 '하하' 웃는다. 대회가 열린 무안 종합 스포츠 파크 안에는 웃음이 가득하다. 그 어울림 속에 전남개발공사 가족들의 화합이 깊게 스며들었다.





인간피라미트 완성!  
자! 정면보고 김치~



네! 근데...  
밥은 언제주나요?  
(꼬르륵)

금강산도 식후경  
밥주세요~~ ㅠ.ㅠ

아들~ 재밌어??

다들 박자 잘못취!  
하나, 둘, 셋!



(덩실덩실~)  
몸 좀 풀리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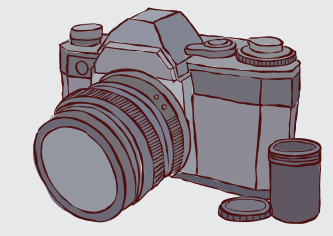


온다온다~  
점프!!!!



어디어디~  
준비, 준비!!!!!!

# 우리 이렇게 JNDC History! 성장했어요~



11월 : 지방공사 설치 조례 제정 공포(조례 제2937호)	12월 : 정관 개정 (1본부 4팀 / 정원 23명)	06월 : 2010 창조리더십 어워드 (윤리경영부문) 대상 수상	09월 : 2010 국가생산성대상(미래경영부문) 수상
2003'	2005'	2008'	2010'
2004'	2007'	2009'	2011'
04월 : 제1대 유수택 사장 취임 06월 : 전남개발공사 설립 / 납입자본금 50억원	08월 : 정관 개정 (3본부 1사업단 13팀 / 정원 82명)	08월 : 제3대 김주열 사장 취임 11월 : 정관 개정 (3본부 2사업단 14팀 / 정원 110명) : 대한민국 지속가능경영 (윤리경영부문) 대상 수상	03월 : 남악골프클럽 개장 04월 : 해남땅굴호텔 1등급 인증 현판식 09월 : 2011 국가생산성대상 (리더십부문)수상, 한옥호텔 '영산재' 개관
	2006'		
	01월 : 남악신도시 및 공영개발사업 (대불주거단지) 특별회계출자 (출자액 3,600억원) 인수 06월 : 영산호 휴게소 현물출자 (출자액 62억원) 인수 08월 : 제2대 이동진 사장 취임 09월 : 정관 개정(2본부 8팀 / 정원 53명)		



2007.06 \_ 디선포식



2007.12 \_ 남악 현장사무실 현판식



2008.06 \_ 울돌목거북선 현장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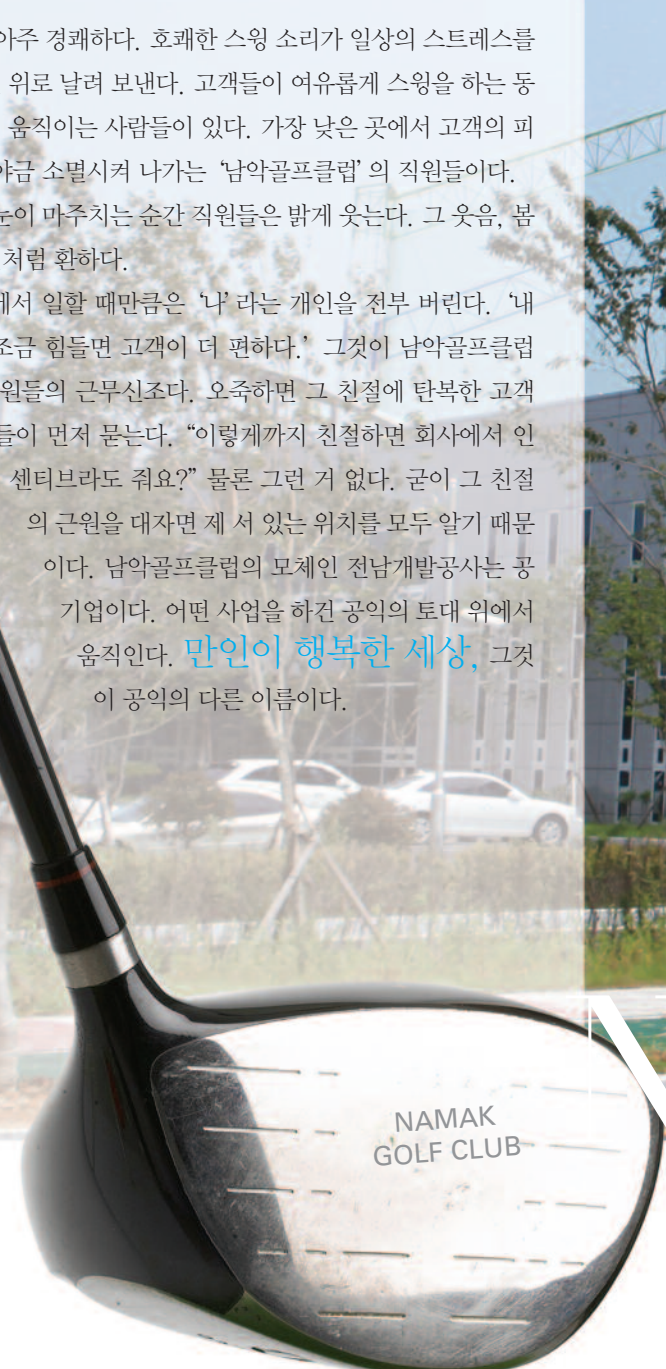
2008.06 \_ 전남개발빌딩 입주식

# 일도! 사랑도! 나이스 샷! 관광운영팀 남.악.골.프.클럽

탁! 소리가 아주 경쾌하다. 호쾌한 스윙 소리가 일상의 스트레스를 녹색의 그린 위로 날려 보낸다. 고객들이 여유롭게 스윙을 하는 동안 부산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고객의 피로를 야금야금 소멸시켜 나가는 '남악골프클럽'의 직원들이다.

고객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직원들은 밝게 웃는다. 그 웃음, 봄날 꽃잎처럼 환하다.

클럽에서 일할 때만큼은 '나'라는 개인을 전부 버린다. '내가 조금 힘들면 고객이 더 편하다.' 그것이 남악골프클럽 직원들의 근무신조다. 오죽하면 그 친절에 탄복한 고객들이 먼저 묻는다. "이렇게까지 친절하면 회사에서 인센티브라도 줘요?" 물론 그런 거 없다. 굳이 그 친절의 근원을 대자면 제 서 있는 위치를 모두 알기 때문이다. 남악골프클럽의 모체인 전남개발공사는 공기기업이다. 어떤 사업을 하건 공익의 토대 위에서 움직인다. **만인이 행복한 세상**, 그것이 공익의 다른 이름이다.



# Nice shot!



### 배려 속에서 믿음이 꽃 핀다

●○ 차두리가 경쾌하게 노래를 부른다. ‘간 때문이야, 간 때문이야, 피로는 간 때문이야.’ 근데 피로는 진짜 간 때문에 오는 것일까? 아니다, 배려 없는 사회에서 온다. 남악골프클럽에 오는 고객들은 운동을 하러 온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건 상관없다. 골프 연습도 일종의 피로를 풀기 위한 장치인데, 직원들이 불친절하면 아무리 간이 좋은 고객이라도 피로가 가득 쌓인다.

그럼 직원들의 피로는 누가 풀어줄까? 다른 거 없다. 고객의 칭찬 한 마디면 십 년 묵은 피로도 한방에 날아간다. “골프연습장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다 보니 물을 철저하게 지키는 게 중요해요. 고객에 따라 물을 다르게 적용하면 차별 받은 고객들의 불만이 쌓이고, 향의도 쏘아지죠. 모든 고객들이 불편 없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잘 조율하고, **습관처럼 친절을 몸에 무장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임무예요.** 간혹 고객들이 고맙다는 말을 건네거나 어깨를 두드리 주면 없던 힘도 생겨요.” 박미정 사원의 말이다.

직원들끼리도 배려 속에서 일의 의미를 찾는다. 남악골프클럽 직원들은 시설팀과 운영팀으로 나뉜다. 각자 업무가 다르다. 그러나 모두 한 팀, 바쁠 때면 업무의 영역을 알아서 파괴한다. 여자 샤워실에 문제가 생기면 운영팀 직원이 달려간다. 엄밀히 말해 시설팀 업무지만 시설팀엔 여성이 없다. 타석의 냉장고에 물수건을 배치하는 것은 운영팀 업무다. 그러나 시설팀 직원들도 제일처럼 거든다.

남악골프클럽은 대전 이남에서 최고의 골프 연습시설을 갖췄다. 공익을 우선의 가치로 삼기 때문에 가격도 싸다. 좋은 시설에 저렴한 가격, 이쯤 되면 고객이 몰릴 수밖에 없다. “무수히 많은 고객들을 응대하려면 팀의 구분 없는 긴밀한 공조가 대단히 중요해요.” 우중강 사원의 말이다.



● 운영주소장 ● 조기용팀장 ● 이선향주임 ● 박미정주임



● 안병룡주임 ● 박장수주임 ● 우중강주임 ● 박수연주임



### 일상이 흥보 무안공항 면세점

비행기 출항 2시간 전, 무안공항 면세점이 갑자기 소란해진다. 3명의 직원이 정신없이 움직인다. 출항 1시간 30분 전엔 면세점 문을 열어야 하고, 그 순간 여행객들이 쏟아져 들어올 것이다. 모든 준비를 마쳐야 한다. 무안공항 면세점 직원들의 모든 시간은 비행기 출항시간에 맞춰져 있다. 퇴근도 출근도 비행기 출항시간이 결정한다. 성수기 때는 새벽 4시에 뜨는 비행기도 있다. 출항 1시간 30분 전에 면세점은 무조건 열려야 하니, 새벽 2시가 출근 시간이 된다. 공항에선 비행기가 법이다. 그것은 모든 공항 면세점 직원들의 숙명이다.

“지난겨울에 엄청난 폭설이 내렸잖아요? 비행기가 24시간 동안 연착한 적이 있어요. 면세점 문은 비행기가 떠야 닫혀요. 24시간 면세점을 열어뒀고, 직원들 모두 꼬박 하루를 공항에서 뜬 눈으로 버텼죠.” 강경미 주임의 증언이다.

면세점 직원들은 일상이 흥보다. 특히 공을 들이는 건 여행 가이드다. 가이드는 여행 기간 동안 여행객들과 깊은 관계를 맺기 마련이다. 여행객의 마음을 움직이려면 먼저 가이드의 마음을 얻어

### 우리의 소원? “직원이 전부 모이는 것”

●○ 남악골프클럽 직원들에게는 소원이 하나 있다. 결코 통일은 아니다. 직원들은 2교대로 근무한다. 함께 일하는 직원이지만 얼굴을 보는 시간은 업무 교대가 이루어지는 짧은 30분이 전부다. 그나마도 업무 인수인계하느라 정신이 없어 사적인 말을 섞어볼 시간이 없다. 당연히 남악골프클럽에 근무하는 7명의 전체 직원이 함께 모여 무언가를 해볼 수 있는 순간도 거의 없었다.

회사도 직원들 사이에 피는 정으로 원활하게 돌아가는 법. 지금껏 직원 전체가 모여 회식자리를 가져본 게 딱 한 번뿐이다. 한 달에 한 번 있는 남악골프클럽 정

기휴일에 큰마음 먹고 모였다. 오랜만에 찾아온 꿀맛 같은 휴일을 포기했지만 그보다 더 즐거울 수가 없었다. 모두 함께 있다는 그 사소한 이유만으로도 그들은 많이 행복했던 것이다.

“우리 소원이 뭐지 아세요? 직원들이 한 자리에 전부 모여 뭔가를 함께 해보는 거예요. 사실 한 직장에서 일을 하면 가족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되잖아요. 정도 쌓이고 **누구보다 소중한 또 다른 가족들인데, 모두가 함께 만나지 못하는 게 늘 아쉬워요.**” 안병룡 주임의 말에서는 직원들 사이의 깊은 애착이 묻어났다. 그 힘으로 남악골프클럽은 매일 ‘나이스 샷!’이다.



야 한다. 면세점 직원들에겐 가이드가 하늘이다. 흥보 사은품을 전달하는 것은 기본이고, 늘 친근감을 표시해야 한다. 웃는 얼굴로 먼저 다가서 인부인사라도 건네면 반드시 돌아오는 게 있다.

“웬만한 여행가이드 얼굴은 다 알아요. 일상이 흥보인데, 먼저 다가가서 밝게 인사하는 게 최고의 영업이에요. 그러려면 한 번 마주친 가이드 얼굴은 절대 잊어 먹으면 안 되죠. 제가 무안공항 면세점 얼굴마담입니다. 하하하.” 김강 잠장이 웃는다. 그 웃음에 면세점의 매출이 밤하늘 달빛처럼 걸려있다.

# “창의적 열정으로 무조건 뛰었죠!” 시작을 말하다

- 윤주식 관광기획팀장

시작이 절반이라는 말이 있으나 창사 당시 상황은 그리 녹록치 않았다. 2004년 10월, 전남개발공사에 갓 입사한 창사 멤버들은 합격의 설레임보다 당장 먹고 살 일이 아득했다. 공사 설립 타당성 용역에서 제시된 목적 사업은 장성 물류단지과 전남 리조트 건설 사업. 그러나 장성 물류단지는 타당성 없음으로 결론이 났고, 전남 리조트 건설 사업 또한 대상 부지가 2004년 말 부터 뜨기 시작한 J프로젝트에 편입되어 버렸다. 거기에서 자본금은 겨우 50억원. 이미 전남개발공사는 항해를 시작했는데 정작 필요한 추진 동력은 탑재하지 못한 것이었다.

아무리 익은 감이라도 감나무에서 절로 떨어지지 않는 법. 맨땅에 헤딩을 해서라도 먹거리를 찾아야 했다. 전체 직원은 모두 6명. 1인 3역이 필요했다. 일이 생길만한 곳이면 직원 모두가 달려갔다. 당시 기획총괄팀장으로 입사한 윤주식 팀장은 이렇게 회고한다. “전남도가 50억원을 출자해 공사를 만들었는데 사업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얼마나 암담했겠어요. 아무리 공기업이라고는 하나 ‘누가 여기 일거리 있소’ 하고 갖다 주는 건 아니잖아요. 모두가 무조건 발로 뛰었죠.”

맨땅에서 가치를 파다.  
모두가 무조건 발로 뛰었다.

### 막고 품으면 걸리는 게 있다

지성이면 감천일까, ‘최초의 일감’ 을 잡았다. 순천의료원 노인 전문병원 건립 사업. 총공사비 70억원으로 3.5% 위수탁 수수료를 받는 사업에 불과했으나 어떠한 거대 프로젝트 못지 않은 의미로 다가왔다. 비로서 개발공사가 그 존재감을 세상에 드러낸 것이었다.

첫 공사를 따내고 나니 전남도의 거대 사업 「J프로젝트」가 막 태동하기 시작했다. 빛이 보였다. 「J프로젝트」는 전남 리조트 단지의 연장선상에 있는 사업. 당연히 개발공사가 일을 맡는 게 순리였다. 개발 면적 3,000만평, 투자금액 수십조원으로 개발계획 및 타당성 용역비만 70억여원에 달할 정도로 메가 프로젝트였다. 그러나 J프로젝트는 개발공사 입장에서 안타까운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국제적인 거대 프로젝트임이 분명하나 먼 미래의 가치일 뿐이었다. 지명도 높은 외국계 컨설팅 회사들을 참여시켜 J프로젝트에 대한 인지도를 높였지만 당장 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었다. 초창기 전남개발공사를 반석위에 올려 세울 굵직한 사업이 당장 절실했다.

그 때, ‘남약신도시’가 포착됐다. “당시 남약신도시 개발 사업은 전남도 공무원 40여명으로 구성된 도청이전사



업본부가 맡아서 하고 있었어요. 개발면적 191만평에 총 투자비만 9,883억원에 달했어요. 창사 멤버 모두, 남약신도시 인수에 개발공사의 사활을 걸었죠.” 윤 팀장의 설명이다.

### 백지 위에 그린 미래 지도, 남약신도시

목표가 생기니 힘이 솟았다. 먼저 남약신도시를 왜 개발공사가 인수해야 하는지 타당성 논리 발굴 작업에 들어갔다. 다른 시·도 공사의 사례 조사는 물론 행정안전부 법령, 규칙까지 샅샅이 분석했다. 다른 한편으로 도청 내부 설득 작업도 치밀하게 준비했다. 반발이 엄청났다. 과히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이었다. 결국 최고 결정권자의 판단이 중요했다. 개발공사를 설립했으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달라고 호소했다. 무려 6개월간 끈질기게 노력한 끝에 2005년 말 남약신도시 개발사업 인수에 성공했다. 그 결과 개발공사는 자본금 50억에서 3,759억으로 미래를 향한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창사 멤버 모두가 창의적인 열정으로 극복해왔어요. 당시 유수택 사장님, 김인협, 정춘길, 노기송 과장, 이동훈, 현혜란 주임 등이 흘린 땀방울이 있었기에 개발공사의 ‘시작’이 가능했지요.” 윤 팀장의 설명이다.



# 아쌀하게 거시기 해볼래!

- 고화빈 지역개발팀장

그에게서는 어떤 힘이 느껴진다. 기(氣)라고 표현해도 좋겠다. 뭐랄까, 어떤 일을 하건 한 번 시작하면 기어이 끝장을 봐야 직성이 풀리는 고집 같은 것이 강한 기운의 형태로 온몸에서 풍어져 나온다. 뚝뚝뚝 걸터 결국엔 목표에 올라서는 우직한 열정, 그것이 고화빈 지역개발 팀장을 지탱하는 힘이다.

그가 제일 싫어하는 말은 ‘대충대충’이다. 대충 움직이면 어떤 결과도 얻지 못한다. 전라도말로 그의 성격을 표현하면 이렇다. ‘아쌀하게 거시기 해분다.’ 그는 무엇을 하건 전부를 건다. 취미생활도 성격을 그대로 반영한다. 고화빈 팀장은 산에 오르는 걸 좋아한다. 배낭 하나 짊어지고 무작정 간다. 모든 체력이 고갈될 때까지 산을 넘고넘고 또 넘는다. 그는 경험으로 안다. 전부를 토해내고 모두 비워냈을 때, 새것이 채워질 공간이 생긴다는 것을.



고객이 잘 돼야 회사가 크고, 결국 저도 행복해 지는 것 아니겠어요

### 초짜팀장에게겐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그는 이제 갓 팀장에 입문했다. 흔한 말로 ‘초짜’다. 그러나 초보들의 어딘지 모를 서투름 같은 게 그에게서는 별로 느껴지지 않는다. 그는 지역개발팀 팀장으로 발령을 받았을 때 ‘창의 경영’을 생각했다. 창의적 생각은 자유로운 생활 속에서 나온다는 게 그의 소신이다.

“자리 지키는 것에 연연해서는 아무 결과도 얻을 수 없어요. 아무 것도 떠오르지 않는데 자리에 앉아만 있으면 뭘해요. 저는 늘 팀원들에게 일이 안 되면 자리를 박차고 떠나라고 말해요. 10층 체력단련실에서 땀을 뻘뻘 흘리고 오던가, 하다못해 옥상에 올라가 크게 심 호흡이라도 하고 오라고 권하죠. 창의적인 생각은 형식의 자유 속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물론 아직 익숙하지 않은 팀장 업무가 쉽지는 않다. 지역개발팀은 모두 7명, 과장일 때는 자기 업무만 확실하게 처리하면 됐다. 그러나 팀장은 전체를 아우르는 역할이다. 팀원들이 담당하는 모든 업무를 일일이 신경 써야 한다. 부드러움 속에 감춰진 칼날 같은 위엄이 필요한데, 아직까지는 그 경지가 쉽지 않다.

### “170억 원짜리 땅, 팔아봤어?”

그는 팀원들과 함께 판을 설계하는 지금 현재가 무척 행복하다. 그는 얼마 전까지 지독한 외로움을 자주 느꼈다. 그는 전남개발공사 노동조합의 1대 위원장이었다. 전남개발공사는 100인 이하 사업장이고, 노조 전임 근무자는 그 한 사람뿐이었다. 노조 사무실을 혼자 지키고 있는 일은 외로움과의 긴 사투였다.

“노동조합은 회사의 투명한 경영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독해져야 하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늘 고민이 깊어서 노조위원장이란 자리를 지키는 게 많이 외로웠어요. 지금은 함께 부대끼는 팀원들이 있으니까 참 좋네요.”

그의 추진력이 빛났던 사건이 지난해에 있었다. 남약신도시 토지 분양에 직원들이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섰다. 그는 혼자서 무려 170억 원 어치의 땅을 팔았다. 그는 고객과의 관계도 대충 맺지 않는다. 긴밀한 관계 속에서 고객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법을 찾는다. 오랫동안 그런 관계가 유지되면서 그와 고객 사이에는 든든한 믿음이 생겼다.

“저는 제 개인의 행복을 위해 그냥 최선을 다해요. 전남개발공사에 뼈를 묻었으면 좋겠어요. 고객이 잘 돼야 회사가 크고, 결국 저도 행복해 지는 것 아니겠어요.”



1 박향진 2 김선숙 3 김은혜 4 현혜란 5 김은애  
6 정윤경 7 노하나 8 신호숙 9 김은지 10 김지민 11 김희영

전남개발공사 전체 직원 110명 중 여성은 20여명(본사 11명·현장사무소 포함) 인턴사원 포함해도 여성 비율이 1/5 수준이니, 팀에 흠일점만 돼도 남성 직원들로서 감지덕지할 따름. 아예 여직원이 한 명도 없는 부서에선 부러움에 시샘이 잔란 아니라고, 공사 내에선 '시선 집중'이 당연지사. 하지만 '꽃'으로만 살지 않겠다는 게 요즘 직장 여성들의 자존심. 뭉치면 할 수 있는 더 큰 일을 위해, 능력껏 평가받고 쓰임 받는 최고의 직장을 위해 모임을 꾸렸으니... '여우회' 되겠다. 공사창립 4년 뒤인 2008년 6월의 '거사' 다.

# 일도, 생활도 똑 부러지는 여우들

"Go Away Mr. Wolf" 그녀들만의 세상 우리는 "여우회"



◎ 여우회란 '여성 사우회'의 준말쯤 되겠지만, 그렇게 단순한 의미만 담고 있진 않다고.

우선 작명권자가 외부인이다. "공사 건물 1층에 입주해 있는 광주은행 모 과장님이 지어줬거든요." 2004년 공사 창립당시 유일했던 여성, 현재는 여우회 총무를 맡은 현혜란씨의 설명.

모임회비 관리통장을 개설하면서 예금주 이름을 고민할 때, 평소 안면 있던 은행직원이 이를 해결해준 것. 더불어 '여우 짓(?) 좀 하라'는 주문도 포함돼 있다고 했다. 모임 결성 후 3년 동안 줄곧 회장을 독재(?)하고 있는 김선숙씨의 해석이다. **"여성 특유의 감성적인 면을 살려 직장에서 분위기 메이커가 돼 달라는 의미도 커요."**

◎ 여우회는 실제 이와 같은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사장님 생신 및 밸런타인데이 등 특정 기념일에 챙겨주는 선물이 대표적. 먼저 베풀면 돌아오는 답례품이 훨씬 많다는 게 선물 공세를 지속해 나가고 있는 동력 중 하나다. 또한 전국도시개발공사 축구대회에 응원을 가는 등 15개 도시개발공사 중 유일하게 여직원 전체가 응원을 하여 공사축구팀은 1승과 더불어 응원상까지 획득할 수 있었다.

◎ 여우회는 공사의 '상품'을 소비자 입장에서 평가하고 개선점을 찾는 데도 적극적이다. 공사에서 생산하는 천일염 제품을 먼저 써보고, 땅끝호텔 등 관광시설을 체험한 뒤 제품 또는 시설물에 대한 장단점을 토론하는 식이다.

◎ 기혼과 미혼여성이 함께하는지라, 정기적으로 모임을 하거나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래도 한 달에 한번은 전체적으로 만나고, 점심은 되도록 함께 하기 위해 노력한다.



점심 후 금남의 공간인 여방(여직원 휴게실의 준말)은 전남개발빌딩 최고의 공간으로 남직원들의 부러움을 사는 곳이다.

이곳에서 직장 생활 과정에서 겪는 (남성들은 모르는) 여성만의 고민이 논의되고, 그 속에서 가슴이 뚫리고 때론 해법도 찾을 수 있는 것. 육아와 가사를 겸하는 기혼 여성들의 이중고, 남성적인 조직 문화 속에서 혼란을 겪는 미혼 여성의 '동병상련'을 확인하는 자리가 바로 여우회다.

◎ 얘기를 하다 보면 몸담고 있는 직장도 직원, 특히 남성에게 대한 주문도 쏟아진다.

"직원격려차원에서 직원생일, 자녀출산과 돌 등 기념일에 꽃이나 케익 등을 챙겨주면 애사심과 소속감이 조금이나마 고취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건 정윤경씨의 의견

"전남개발공사 내 여직원 비율이 너무 빈약하다"고 지적한 회장 김선숙 씨는 "팀장급 이상 간부진에 여성의 기용이 많아졌으면 한다"는 주문을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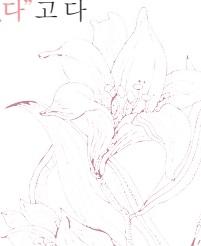
실제로 현장에선 여성들의 섬세함이 능력을 발휘하는 곳도 많다는 게 이들의 평가다. 감독 업무를 맡고 있는 박향진씨의 얘기. "현장에서는 여성감독을 별로 달가워하진 않는 것 같아요. **여성들이 그만큼 업무에 빈틈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여성에게 대한 이 같은 평가가 공사 내 채용·인사에서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분위기여서 다행스럽다.

◎ 여우회는 최근 여직원 두 명이 공채된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한 의미를 뒀다. 여성 공채가 3년만에 이뤄졌기 때문이다. 특히 기술직 부문에서...

수습생활(3개월)을 마치고 정식 발령을 받는 김은애, 김은지 씨 역시 여우회가 고맙기는 매한가지. 이들은 "낮선 직장 생활이지만, 여우회 선배들의 관심과 배려가 있어 업무에 쉽게 적응할 수 있었다"고 고마움을 표했다.

◎ 그렇다고 여우회가 친목 모임 수준에 만족하는 건 아니다. 회장 김선숙씨는 "어려운 이웃, 특히 어린아이를 정기적으로 후원하는 데 여우회의 소망을 두고 있고, 조만간 이를 실천하겠다"고 다짐했다.



# Stretching!

## 피로야, 가라! 뱃살도 가라!

### 사무실에서 하는 간단 스트레칭

사지가 멀쩡한데 하루 종일 취하는 자세는 비슷하다. 앉아 있거나 또 앉아 있다. 그것이 문제라면 문제다. 책상 앞에 하루 종일 앉아 손가락만 겨우 움직이는 게 직장인의 현실. 근육은 퇴화하고 몸은 뻣뻣해진다. 같은 자세로 앉아 있다 보니 뱃살만 늘어났다. 근육은 뭉쳐서 빠르고, 피로는 달고 산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처한 슬픈 현실이다.

잠을 내서 운동을 하기도 쉽지 않다. 그렇다고 마냥 비관만 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있는 조건을 최대한 활용해서 짬짬이 운동을 하는 수밖에. 이럴 때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은 스트레칭. 근력과 유연성 증진과 함께 쉽게 빠지기 힘든 뱃살과 팔뚝 살을 빼는 데 도움을 준다.

일상에서 수시로 몸을 움직이고, 바른 자세로 생활하는 습관이 중요하다. 적은 시간을 투자해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는 스트레칭은 직장인에게 맞춤형 운동. 사무실에서 앉은 채로 짬짬이 할 수 있는 스트레칭을 소개한다. 이름을 붙이지 않으면 오피스 짬짬이 체조. 의자에 앉아서 할 수 있는 4가지 간단한 동작으로 이뤄져 있다. 짬짬이 하는 체조지만 효과는 무시할 수 없다.

#### 목 스트레칭

우선 허리를 반듯하게 펴고 목을 뒤로 젖힌다. 그런 다음 천천히 목을 앞으로 숙인다. 오른쪽으로 목을 한 바퀴 돌린다. 전 동작을 되풀이하여 뒤 왼쪽으로 목을 한 바퀴 돌려준다.

\*목 회전 시 천천히 움직인다.

#### 팔 스트레칭

각지를 끼고 5초 간 두 팔을 앞으로 뻗는다. 각지를 낀 채 팔을 안으로 굽힌다. 각지 낀 두 팔을 5초 간 위로 뻗는다. 바른 자세를 취한 후 어깨위로 손을 올려 손목을 4회 털어준다.

\*각지가 풀리지 않도록 한다.

#### 다리 스트레칭

두 손으로 오른쪽 무릎을 감싸 오른쪽다리를 굽혀 들었다가 내린다. 하나 동작을 10회 반복하고 바른 자세를 취한다. 천천히 오른쪽 다리를 펴면서 올렸다가 내리기를 10회 반복한다.

\*허리가 굽혀지지 않도록 바른 자세를 취한다.

#### 등과 배 스트레칭

양팔을 펴고 상체를 앞으로 내밀며 다리를 앞으로 뻗어준다. 동작이 끝나면 바른 자세를 취한다. 바른 자세로 앉아 두 다리를 앞으로 뻗어준다. 상체를 앞으로 깊숙이 굽혔다 펴고, 동작이 끝나면 바른 자세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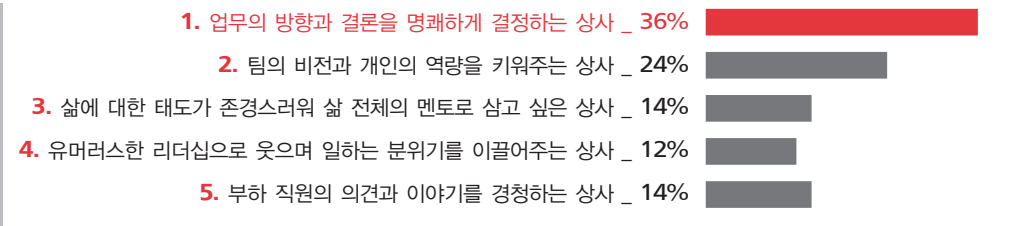
\*등이 굽혀지지 않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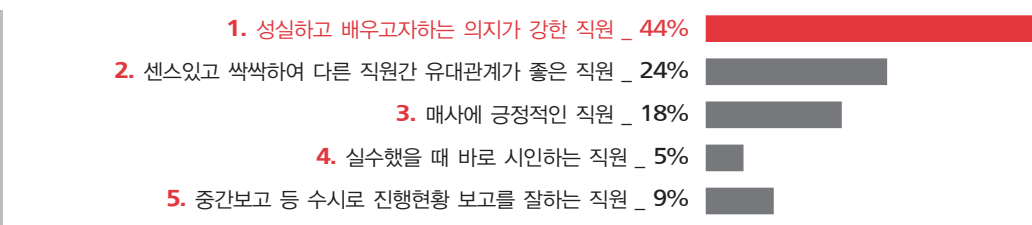
사람은 무엇을 먹고 살까? 절대로 밥만 먹고는 못 산다. 모든 사람은 '관계'를 먹고 산다. 가정에서도, 친구들 사이에도, 회사에서도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힘을 얻고 기쁨은 좌절하기도 한다. 사람 사이의 관계가 끈끈한 조직은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쳐도 서로에 대한 믿음으로 위기를 거뜬히 극복한다. 관계를 규정하는 건 '말' 과 '행동' 이다.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

다고 했다. 가족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직장동료. 서로에게 건네는 말 한 마디가, 사소한 행동이 힘을 주기도 하고 다리의 힘을 스스로 풀리게도 한다. 지금껏 감춰왔던 진실, 전남개발공사 직원들이 생각하는 직장상사 · 동료 · 후배 대한 솔직한 마음을 물었다. 그 리얼한 답변 속으로, "빠져 봅시다!"

가장 이상적인 상사 유형은?



같이 일하고 싶은 후배직원은?





직장 내 가장 우선시 해야 할 기본 에티켓은?

- 1. 출, 퇴근시를 비롯해 마주쳤을 때 인사하기 \_ 43%
- 2. 공손한 언어 사용하기 \_ 31%
- 3. 부르면 대답하고 부른 사람 바라보기 \_ 12%
- 4. 근무 중 개인적인 일 하지 않기 \_ 7%
- 5. 항상 자기 주변 정리정돈하기 \_ 7%

상사에게 듣는 가장 기분 좋은 말은?

- 1. 고생했어. 수고했어 \_ 41%
- 2. 일찍 퇴근해 \_ 13%
- 3. 아주 잘했어. 역시 OO밖에 없어 \_ 16%
- 4. 요즘 힘들지? 힘내 \_ 22%
- 5. 오늘은 내가 쓴다!! \_ 8%

동료가 가장 부러울 때는 언제인가?

- 1. 나보다 빨리 승진할 때 \_ 35%
- 2. 배우자에게 눈치보지 않고 개인생활 할 때 \_ 7%
- 3. 상사에게 사랑을 독차지할 때 \_ 16%
- 4. 많은 업무를 소화하고는 칼퇴근할 때 \_ 34%
- 5. 부러울게 없다. 난 잘하니깐~ \_ 8%

즐거운 직장을 구분하는 척도?

- 1. 업무만족도 및 성취감 \_ 36%
- 2. 직원들 간의 유대감 \_ 11%
- 3. 복지환경 및 체계적인 보상시스템 \_ 30%
- 4. 회사를 통한 자긍심(애사심) \_ 15%
- 5. 체계적인 조직환경 \_ 9%



직장 내 꼰불견 상사는?

- 1. 부하에 대한 기대가 없고 불신하는 상사 \_ 15%
- 2. 스트레스 조절을 못해 히스테릭한 상사 \_ 26%
- 3. 공사 구분 못하고 개인잡무 시키는 상사 \_ 17%
- 4. 한번 찍히면 뒷끝 있는 상사 \_ 10%
- 5. 상사에겐 에스맨이면서 부하직원들을 쪼는 상사 \_ 32%

직장 내 꼰불견 부하직원은?

- 1. 상사에 아무하며 줄 대는 부하직원 \_ 21%
- 2. 능력 없으면서 배우려는 의지도 없는 부하직원 \_ 27%
- 3. 네 알겠습니다! 해놓고 정작 결과를 지지부진한 부하직원 \_ 9%
- 4. 뻔한 거짓말과 변명으로 책임 회피만 하려는 부하직원 \_ 27%
- 5. 지각/조퇴/보고 회피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부하직원 \_ 16%

직장 내 원활한 관계형성을 위해 필요한 요소는?

- 1. 상대방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편견버리기 \_ 15%
- 2. 성실한 경청과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 \_ 40%
- 3.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전달하기 \_ 9%
- 4. 상대방의 의견을 수용하고 양보하기 \_ 23%
- 5. 서로의 지식과 경험의 공유 \_ 13%





새로운 신입사원들이 들어왔다. 칙칙하던 회사가 갑자기 화사해졌다. 정작 신입사원들은 낯선 공간에서 긴장의 연속일 것이다. 그러나 선배사원들은 저절로 입가에 배시시 웃음이 번진다. 신입사원들의 서툰 몸짓을 보니 까맣게 잊고 있었던 저 옛날 첫 출근의 기억도 떠오른다. '그래, 나도 저런 때가 있었지.' 아무리 생각해도 처음은 무엇이든 받아들일 수 있어 좋은 때인 것 같다.

## 진짜 피로회복제는 약국에 없다!

- 백형수 과장

# Mentor

### 복사 심부름 속에 길이 있다

이제 진짜 세상을 향해 조심조심 걸음을 옮기는 신입사원들에게 어떤 말을 해줄 수 있을까? 잠시 독한 선배가 되어야겠다. 처음에 확실히 박살나면 나중에 편한 법, 경험으로 봤을 때 빠른 적응은 관심으로부터 시작된다. 선배들이 가르쳐 주기도 하겠지만 두 눈 부릅 뜨고 배우려는 의지가 없으면 말짱 '짱'이다.

이건 팁이다. 신입사원 때 하는 일, 사실 별 거 없다. 나 역시 그랬다. 도대체 선배들은 어떤 일을 하는지 무척 궁금했지만 조곤 조곤 가르쳐주는 선배, 별로 없었다. 기껏 복사 심부름이 전부였는데, 퍼뜩 내 나름의 비법이 하나 떠올랐다. 선배들이 복사를 시킬 때 언제나 한 부를 더 복사해 꼼꼼히 읽었다. 업무 파악이 훨씬 쉬어지더라.

우리공사 업무특성상 행정업무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스스로 일을 기획하며 추진해야할 경우가 많다. 아이디어가 머릿속에만 들어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겠지? 생각이 실행의 단계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어떤 아이디어건 문서화 시키는 작업이 중요하고, 추진했던 업무에 대해서는 반드시 분석을 하는 것도 필요한 절차다.

생각을 환기시키는 작업도 필요하다. 조직 내에만 있으면 사고가 닫혀서 늘 같은 테두리에서만 생각하게 된다. 우리와 전혀 다른 조직의 사람들과 자주 어울리는 게 필요해. 짬짬이 강의도 들으러 다니고, 전혀 다른 계통의 일을 하는 사람과 관계를 맺다보면 이전까지는 전혀 보이지 않는 게 보이게 된다. 어느 순간 다른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된다.

### 너희가 '기록'의 힘을 아느냐?

'에스맨'을 경계하라는 말도 꼭 해주고 싶다. 시키는 대로 늘 따라만 가면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같은 자리만 맴돌게 된다. 신입사원은 신입사원다워야 하고, 가끔 실수를 하더라도 좌충우돌 부딪치는 패기가 필요하다.

목표를 세우는 것도 중요하다. 목표는 하나의 좌표가 되고, 길이 된다. 목표가 있으면 오래 걸을 수 있다. 목표에 근접하기 위해서는 기록하는 습관을 몸에 배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업무일지를 쓰면 목표가 손에 잡힐 듯 가까워진다. 아침엔 하루의 목표를 기록하고, 월요일엔 일주일의 목표를 기록하고, 1일엔 한 달의 목표를 기록하고, 1월엔 일 년의 목표를 기록하다 보면 어느 순간 너희 안에 오래 품은 꿈이 기록돼 있을 것이다.

항상 곁에 자기개발서를 뒤라. 성공을 이룬 사람들의 말은 사고 자체를 긍정적으로 바꿔주는 힘이 있다. 그들이 어떻게 계획을 실천으로 옮기고 꿈에 근접했는지 알게 되면 모든 일에 자신감이 생긴다. 브라이언 트레이시의 '목표 그 성취의 기술'이란 책을 권하고 싶다. 읽고 나면 의욕이 넘치고, 엔돌핀이 솟는다.

사회라는 공간에서 살아보니 이제 알겠다. 진짜 피로회복제는 약국에 있는 게 아니었다. 며칠 밤샘 근무를 할지라도 일의 성과를 낸 뒤 선배들에게 듣는 칭찬 한 마디면 모든 피로가 말끔하게 갈라지더라. 우리 신입사원들, 모두 화이팅!

● 신입사원 김은지 씨



## 두려울 것 없는 "나는야, 신입사원"

- 김성현 · 김은지 씨

얼굴에 두 개의 표정이 있다. 긴장과 설렘, 두 개의 상반된 감정이 어느 한쪽으로의 치우침 없이 팽팽하다. 첫 출근, 그것이 무엇이든 처음은 늘 빛나는 가능성과 연결된다. 이제 입사 5개월, 아직 모든 게 낯설다.

말투에서 신입들의 들뜬 패기가 느껴진다. 생각이 툭툭 튀다. 신입사원 김성현 · 김은지 씨. 조심스럽게 건네는 말에서 자신감이 묻어난다. 엄청난 경쟁을 뚫고, 지금 여기에 섰다. 이제 긴장을 단단한 열정으로 바꿀 일만 남았다. 그들이 전남개발공사에서 꿈꾸는 내일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 입사하자마자 곧바로 현장파견

딱 봐도 성현 씨는 신입사원이라 하기엔 나이가 많아 보인다. 이미 결혼도 했다. 올해 나이 서른여섯. 사기업에서 상당한 경력을 쌓았고, 조금 더 안정적인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재취업 공부를 시작했다. 그는 입사한지 얼마 되지 않아도 현장 파견을 명받았다. 나주혁신도시 현장이다. 이전에 했던 일과 업무는 유사하지만 하루하루가 어릴때보다.

그는 빠른 현장 파견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신입사원이나 본사에서 많은 선배들의 얼굴을 익히고, 동기들과도 빨리 친해지고 싶은데 혼자 떨어져 있으니 좀 서운해요. 반면 나주현장은 근무하는 사람이 적어 가족적인 분위기고, 빨리 업무를 익힐 수 있어 아주 좋아요."

그는 욕심이 좀 많다. 일 욕심이다. 늦은 나이에 입사한 자신의 현실을 알기 때문에 처음부터 승진에는 큰 기대를 품지 않았다. 그러나 일을 제대로 배워보고 싶은 욕심은 창창하다. 전남개발공사에서 담당하는 모든 업무를 한 번쯤은 다 경험해 보고 싶다. 창의적 발상으로 다양한 일은 모두 해낼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성현 씨가 꿈꾸는 스스로의 미래다.

올해의 목표도 이미 세웠다. "이전에 쌓았던 경력과 현재의 일을 잘 결합하는 게 중요할 거 같아요. 무조건 시행착오를 잘 겪어내서 올해가 가기 전에 내 몫을 해내는 한 사람으로 자리매김했으면 좋겠어요."



● 신입사원 김성현 씨

### 흔치 않은 여성 토목기사

은지 씨는 젊고 발랄하다. 그 어렵다는 공기업 취업의 관문을 스물다섯 나이에 뚫어냈다. 대학 때부터 공기업이라는 확실한 목표를 세우고 착실히 준비했다. 심지어 두 번의 인턴생활도 맞춤형으로 철도공사와 토지주택공사에서 경험했다.

그는 전남개발공사에서도 흔치 않은 여성 토목기사다. 언제부터 토목 기사를 꿈 꿔왔을까? "토목 관련 일이 여성이 하기에는 좀 버거워 보이잖아요. 토목과에 다니는 여학생도 별로 없고요. 저는 역으로 생각했어요. 여성이 소수니까 오히려 더 경쟁력이 있을 거라고 바꿔 생각했어요."

여자 동기는 겨우 6명뿐이었지만 대학생활도 아주 즐거웠다. 공부가 재미있었고, 빨리 학교를 졸업하고 현장에 나가고 싶었다. 간혹 현장에 나가있는 자신의 모습을 미리 그려보기도 했다. "토목공사 현장이 규모가 작지 않잖아요. 그 넓은 현장을 진두지휘는 일 자체가 아주 매력적인 거 같아요."

올 해는 현장으로 나가기 위한 준비의 시간으로 잡았다. "대학에서 배운 이론과 실제 현장은 많이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과정은 공기업에 입사해 토목현장으로 나가기 위한 과정이었어요. 빨리 내 현장을 갖고 싶어요."

# 평범 속에서 특별함을 낳는 그 하루

- 김윤수 도시개발팀 과장

그는 바쁘다. 어깨 위에 올려진 짐이 만만치 않다. 회사에서는 일상 업무와 함께 노조위원장의 직무가 추가된다. 집에서는 한 여자의 남편이고, 두 아이의 아빠다. 그는 또 반듯한 이미지로 기억되는 사람이다. 주어진 일을 언제나 막힘없이 풀어낸다. 그래서일 것이다. 그의 아침은 항상 분주하고, 저녁은 늘 서둘러 저문다.

## 해보다 먼저 일어나는 사람

2011년 6월 8일, 그의 하루는 어땠을까? 그는 늘 그렇듯이 해보다 먼저 일어났다. 새벽 4시40분에 눈을 떴다. 매일 아내와 함께 새벽 예배를 다녀온다. 집으로 돌아오니 6시, 씻고 책을 읽으며 편안하게 다가올 하루를 미리 그려봤다. 6시40분, 중학교에 다니는 딸이 일어났다. 20분 뒤 아들도 잠에서 깼다. 오늘도 아침은 가족 모두가 함께 먹는다. 함께 얼굴 보며 밥을 먹는 그 시간이 하루의 활력으로 연결된다. 이 시대의 모든 가정은 가족의 힘으로 살아갈 의미를 만든다.

오전 8시, 네 가족이 함께 집을 나섰다. 그에게 주어진 출근 전 임무는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 주는 것. 애들 학교를 찍고, 회사에 도착하면 8시25분. 그는 머릿속에서 하루 일과를 먼저 떠올린다. 오늘 아침에는 급히 처리할 일이 있다. 그는 전남개발공사의 노조위원장, 18일에 조선대 운동장에서 '전국도시개발공사축구대회'가 열린다. '전국도시개발공사노조협의회'와 함께 대진표도 논의해야 하고, 각 개별공사 별로 준비할 사항들도 체크해야 했다.

노조 일이 끝나면 행정업무로 복귀한다. 그가 요즘 전념하고 있는 일은 영산호 관광단지 내 한옥호텔 '영산재'의 전기시설을 설치하는 업무다. 오늘은 '수배전반'을 설치하는 날, 긴장된 하루다. 수배전반은 일종의 변전소 시설이다. 덩치가 무려 25톤, 안전사고의 위험이 적지 않다.

본사에서 점심을 먹고, 오후 1시 무렵 영산호 관광단지로 출발했다. 그는 도착과 동시에 일하는 사람들의 복장점검을 철저히 진행했다. 안전사고는 작은 빈틈에서부터 시작한다. 수배전반을 실은 트럭이 들어온다. 물건을 내리기 위해 지게차가 움직인다. 수배전반은 10개 내외의 부품으로 분리돼 있다. 먼저 지게차로 움직이고, 건물 안에서는 사람이 지렛대로 옮겨 조립을 한다. 과적물이라 옮기고 조립하는 과정에서 사람이 다칠 위험이 있다. 그는 긴장을 유지하며 그 모든 과정을 지휘한다.



오후 3시, 옮기는 작업이 끝났다. 이제 남은 건 수배전반에 각 케이블을 접속시키는 일, 긴장을 늦추면 안 된다. 전극을 잘못 맞춰 케이블을 연결하면 수배전반이 폭발해 버린다. 다행히 별 탈 없이 작업이 마무리됐다. 그의 얼굴에 안도의 웃음이 넓게 번진다.

## 아내와 매일 삼향천을 걷는 행복

영산호 관광단지 일을 마치고, 그는 오후 5시 무렵 본사에 복귀한다. 현장 감독일지를 작성하고, 마무리 정리를 시작한다. 그는 경험으로 알고 있다. 마무리를 잘 해야 다가올 내일이 편하다. 오후 6시30분, 그는 퇴근한다.

집에 돌아보면 7시, 둘째와 함께 돌아온 아내가 저녁을 준비한다. 셋이 저녁을 먹는다. 설거지는 그의 몫이다. 오후 8시, 그가 늘 가장 기다리는 시간이다. 아내와 함께 집을 나서 삼향천 공원 한 바퀴를 돌며 가볍게 산책을 한다. 걸으며 아내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는 그 시간이 그에게 행복이다. 요즘 대화의 중심은 단연 둘째다. 7월15일 미국으로 유학을 떠난다. 영화감독의 꿈을 꾸는 아이에게 좋은 기회지만 부모 마음은 복잡하게 얽힌다. 아직 어려 늘 눈에 밝힌다.

1시간 산책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9시다. 그 무렵 학원에서 큰 아이가 돌아온다. 간식을 놓고 네 식구가 모인다. 최근의 관심사를 자연스럽게 이야기한다. 사춘기에 접어든 큰 아이는 요즘 부쩍 외모에 관심이 많다. 둘째는 유학가기 전 친구들과 함께 만들고 있는 영화 이야기를 꺼내 놓는다.

간식을 다 먹으면 각자의 방으로 들어온다. 새벽기도를 가야 하기 때문에 그는 11시쯤 잠을 청한다. 2011년 6월 8일, 평범한 그의 하루는 그렇게 저물었다. 평범한 그 하루하루가 모여 그와 그의 가족을 특별하게 만든다.



4:40 기상

7:00 새벽예배 다녀옴  
7:00 집으로 돌아옴

8:00 가족들과 아침식사  
8:00 출근

8:25 아이들 등교시켜주기  
8:25 회사도착

12:00 아침업무 처리  
12:00 점심

15:00 영산호 관광단지 내 업무  
15:00 영산호 관광단지 내 업무

17:00 현장감독일지 작성  
17:00 마무리 작업  
17:00 본사복귀

18:30 퇴근

23:00 취침

21:00 집으로 돌아옴

20:00 아내와 운동

19:00 저녁식사

18:30 퇴근

가족들과 간식시간

삼향천 산책

설거지

# 고객이라면 버.선.발 마.중

- 고객맞이팀 김재홍 주임



지난 3월 전남개발공사가 '대박' 을 터트렸다.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내 용지를 (주)부영주택에 1,670억 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성사시킨 것. 2004년 공사 설립 이래 단일 계약으로는 최고 실적이었다. "4개월여 동안 부영 측을 끈질기게 협상한 결과죠. 본사가 있는 서울을 수시로 찾아다니면서 설득 끝에 이뤄낸 성과입니다." 공사 전 직원이 합심해서 일궈낸 결과물인데, 고객맞이팀 김재홍 주임의 감회는 특히 더 남달랐다.

고객맞이팀은 공사의 핵심 수익부서로, 옛 분양팀의 다른 이름이다. 공사는 지난해 김주열 사장의 지시로 한 부서로 묶여 있던 '분양·보상팀' 을 분리했다. 이후 분양팀은 '고객맞이' 라는 새 이름을 달았는데, 공사 수익사업의 핵심인 분양 고객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실제 고객맞이팀 김 주임은 분양 고객을 발굴하는 데 열성적이다. 이를 통해 고객 리스트를 작성한다. 용지 성격에 맞는 투자자를 선별, 구매 여부를 타진할 수 있는 중요 자료다. 공사를 직접 찾아오는 고객 응대 역시 고객맞이팀의 임무. "5~20억 원대 규모의 개인투자자는 직접 방문이 많다"는 게 김 주임의 설명이다.

이런 고객에겐 상품을 제대로 알리는 게 중요한 작업. 고객맞이팀은 공사가 판매하는 택지나 산업단지 현황을 자료화 해 관리한다. 관련 지자체가 제공하는 세계해택이나 행정 지원 등의 인센티브도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고객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이다.

판매 후 고객 만족도도 꼼꼼하게 조사한다. "한 번 고객은 다른 용지 구매 가능성도 크다"는 게 김 주임의 믿음. 거래에서 드러난 불편과 불만을 해소해 이들을 충성고객으로 만들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현재 공사가 판매하고 있는 주력 분양 상품은 남악신도시 택지,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택지, 장흥해당산단, 대불산단 용지, 장성황룡행복마을 택지 등이다. 이중 남악신도시나 혁신도시 부지는 고객이 알아서 찾아오는 노른자위. 미분양 걱정이 덜한 곳이다.

문제는 산업단지. 꼭 필요한 기업이 아니면 투기나 다른 목적의 거래는 기대하기 어렵다. 규모가 방대하니, 거래 액수도 크다. 매매가 쉽게 이뤄질 리 없다.

"경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죠. 산단이 팔리지 않는다는 건 지금 경제 상황이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공사를 위해서도 그렇지만, 나라를 위해서라도 산단용지가 잘 팔려야 해요." 고객맞이팀 김 주임의 소망이다.

# 안정을 버려라!

- 김정태 변호사



김정태 변호사, 그의 고향은 대구다. 대구는 전남과 심리적 거리가 아주 먼 땅이다. 왜 아니겠는가? 정치논리 안에서 철저히 지역감정에 의해 흘러왔던 나라에 우리는 살고 있다. 그러나 그는 전남에 대한 관심이 높다. 그 관심의 연결고리가 바로 '전남개발공사' 다.

그가 처음 전남개발공사와 인연을 맺은 건 지난 2009년이였다. 전남 무안에 기업도시 개발관련 여러 기업들이 참여하여 '한중산업단지개발(주)' 라는 법인을 구성했고, 전남개발공사는 그곳에 주주로 참여했다. 그는 한중산업단지개발(주)의 자문 변호사였다. 그것을 인연으로 전남개발공사의 몇몇 사업들에 법률자문을 했고, 올해 3월에는 전남개발공사에 직접 찾아와 직원들을 대상으로 알기 쉬운 '법률 강의' 를 진행하기도 했다.

강의가 끝나고 직원들과 편안하게 대화하는 시간도 가졌다. 그는 전남개발공사 직원들에게서 굉장한 열정을 읽었다. 직원들이 공사가 맡고 있는 사업과 관련한 질문들을 던지는데, 아주 날카로웠다.

"사실 전남개발공사는 역사가 짧다. 당연히 여러 사업들을 진행하는데 있어 미숙한 부분이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직원들이 자기가 맡은 사업과 관련해 상당히 세밀한 법률 지식까지 알고 있어 많이 놀랐다. 법률과 관련된 질문들이 모두 깊이가 있었다. 걸어온 시간의 경험에 비해 공사 내부에 축적된 힘이 만만치 않구나 생각했고, 공사의 미래가 상당히 밝아 보였다."

전남개발공사에 대한 애착은 진심어린 조언으로 이어졌다. 그는 공사와 직원들에게 "지금 안정을 버리면 오히려 안정된 미래가 가까워질 것이다"고 조언한다. 공기업은 사기업에 비해 공격적인 측면을 강조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사업의 성

과도 내야 한다. 특히 전남개발공사가 궁극적으로 진행하는 사업들은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일이다. 또 혼자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여러 민간기업과 함께 보조를 맞춰야 한다.

"공기업들은 민간기업보다 안정적인 구조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업무에 있어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모험을 하기보다 리스크를 줄이는 방향을 먼저 생각하고, 감사에 대한 부담으로 문제가 생길 위험이 있는 사업은 아예 포기해 버리기도 한다. 그러나 개인의 안정을 먼저 생각해서는 큰 틀의 발전이 없다. 전남개발공사는 지금 치밀한 계획을 무기로 과감히 도전할 때다."



## ‘나’ 다음, 그 아름다운 집념

- 배우 이한위

지금으로부터 13년 전이다. 배우 이한위가 진정한 자기 존재를 드러냈다. 1998년 영화 ‘8월의 크리스마스’가 개봉했다. 그의 연기는 눈부셨다. 죽음의 내면을 것처럼 서늘하면서도 유쾌하게 연기할 수 있는 배우가 세상에 몇이나 될까?

배우 이한위는 모든 것을 유쾌하게 바꿔버리는 내공을 지녔다. 브라운관이나 스크린을 벗어난 실제 이한위란 사람은 어떨까? “내가 있는 현장은 늘 재밌다. 왜 재밌는지는 나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재밌다. 아내랑 전화통화를 해도 다섯 번은 크게 웃는다. 무엇 때문에 웃었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어쨌든 서로 유쾌하게 웃는다. 그게 나다.”

그는 그렇게 ‘유쾌 바이러스’를 주변에 전염시키는 사람이다. 그 마법 같은 유쾌함의 매력에 한 번 빠져들면 대책이 없다. 누구나 함께 일하고 싶어 한다. 그는 늘 바쁘다.

### 작은 역할은 없다, 작은 배우가 있을 뿐

한 번은 아주 진지하게 ‘나는 왜 이렇게 바쁜가?’에 대해서 생각한 적이 있다. ‘내가 연기를 잘 해서일까?’ 아니면 ‘내가 인간성이 엄청 좋아서일까?’ 답은 어렵지 않게 나왔다. 그가 결론 내린 배우 이한위의 매력은 이렇다. “나답게 연기하기 때문이다.” 드라마 ‘베토벤 바이러스’의 출연 섭외가 들어왔을 때, 그는 ‘나다운 연기’에 대한 확신을 가졌다. 촬영이 시작되기 불과 25일 전에야 연락이 왔다. 배역은 ‘성난시장’이었다. 역할만 놓고 보면 엄청난 신분상승이었다. 어쩌다 ‘장’을 맡아도 그는 기껏 음식점 주방장이거나 포졸 반장이 전부였다. ‘시장’은 말 그대로 벼락 출세였다.

“시장이라는 캐릭터를 나보다 잘 연기하는 배우는 세상에 많다. 분명 나는 캐스팅 1순위가 아니었을 것이다. 어쩌면 나는 13번째쯤, 맨 마지막에 떠오른 배우였을지도 모른다. 감독은 나를 시장 캐릭터로 캐스팅하며 어떤 연기를 기대했을까? 답은 뻔하다. 지금껏 내가 보여줬던 나다운 연기로 ‘성난시장’을 소화해 내는 것이었다.”

그는 자신의 색깔이 분명한 ‘명품 조연’이다. 주연에 대한 욕심은 없다. 주연이나 조연이나 다 각자의 역할이 있고, 단 1분을 출연하더라도 자기 정체성을 지키는 배우로 남으면 된다. “세상에 작은 역할은 없다, 다만 작은 배우가 있을 뿐이다.” 이것이 배우 이한위가 27년을 연기하며 자기 내부로부터 건져 올린 오랜 연기철학이다.

### ‘미친 짓’에서 시작한 연기

지금만 인간의 배꼽을 대사 한방으로 실종시켜 버리는 배우가 됐지만 고등학교 때까지 그는 내성적인 성격이었다. 그 성격을 바꾸기 위해 그는 자기 내부에서 끊임없는 사투를 벌였다. 일부러 사람들 앞에 나섰다. 그 때 이 나라에 ‘문화대혁명’이 일어났다. 그룹사운드의 시대가 도래했고, 거리에 울려 퍼지는 노래들이 그에겐 모두 충격, 그 자체였다.

음악에 빠진 그는 어느 날 친구들에게 일생일대의

실언을 해버리고 만다. 그가 지금껏 ‘미친 짓’으로 규정하고 있는 그 실언은 이랬다. “내가 대학에 가면 반드시 대학가요제에 나가겠다.” 물론 진짜 나가려고 했다. 대학가요제 광주 예선이 열리는 곳에 찾아가기도 했다. 그러나 뼈저리게 실력의 부재를 느끼며 돌아섰다.

“참, 무모했다. 내 잘난 맛에 생각만 하면 뭐든 다 될 줄 알았다. 막상 가보니 내 노래 실력으로는 꿈도 못 꿀 자리였다. 충격이 얼마나 컸으면 그때 이후로 지금껏 선언이나 호언장담을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실의에 빠져 있던 그에게 한 줄기 빛이 내려왔다. 그것은 ‘조대국회’의 회원모집 공고였다. 그 공고 앞에서 그는 뼈저린 깨달음을 얻었다. “맞다, 저 거다. 나에게 정말 맞는 일은 연기다.”

정말 열심히 했다. 연극의 재미에 빠져 대학 4년을 보냈다. 물론 취직공부는 뒷전이였다. 어느 순간 그에게 공채 텔런트의 길이 보였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내게는 텔런트 시험이 입사시험이 아닐까?” 제 나름의 입사시험을 준비했고, 그는 1983년 KBS 공채 10기에 뽑혀 직업으로서의 연기를 시작했다.

### “나를 키운 건 8월이 전라도”

그는 고향에 대한 애착이 극진한 사람이다. 어디를 가나 자신이 전라도 출신임을 당당하게 밝힌다. 심지어 쇼프로나 라디오에 출연해서 모교인 조대부고의 교가를 30번 이상 불렀다. 특별한 이유는 없다. 단지 출신성분을 숨길 필요가 없어 보였다.

동료 배우들에게 ‘전라도사투리 선생’으로 통한다. 그에게 전라도 사투리를 배운 쟁쟁한 배우들이 한둘이 아니다. 안성기, 하지원, 정준호, 정재영 등등. 연기용 전라도 사투리는 그가 대한민국 1인자다.

그는 전라도가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 속에 자리 잡기를 원할까? 전라도는 남겨둔 땅이고, 꼭꼭 숨겨져 있던 땅이다. 거기 아름다운 자연이 있고, 그 안에 빛나는 가치들이 촘촘히 박혀있다. 다만 그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유산을 현재적 가치로 아름답게 전환시키는 발상의 전환들이 필요하다.

“전라도는 깨끗한 고장이다. 지금은 맑은 공기도 충분히 경쟁력 있는 자산이 되는 시대다. 아름다운 땅의 숨결과 그 안에 깃든 사람의 문화가 있고, 무엇보다 전라도에는 아직 인정이 살아있다. 전통과 현대의 가치를 적절히 조합해 지금 시대에 맞는 새로운 가치를 역어내는 게 중요해 보인다.”



크게 웃는다.  
무엇 때문에 웃었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어쨌든 서로 유쾌하게 웃는다.  
그게 나다.

# 이한위



# 시간이 느려지는 곳, 장흥



그곳에서 시간은 더디게 흐른다. 유장하게 흐르는 탐진강과 함께 바람도 흐르고, 산도 흐르고 마음도 흐른다. 굳이 '슬로우 시티' 라는 수식어를 붙이지 않아도, 그렇다. 장흥이다. 장흥사람들의 자부심은 남다르다. 장흥사람들은 장흥이라고 뚝 떨어지게 발음하지 않는다. 장흥은 '자웅'이다. 입에서 나온 소리마저 반침들을 타고 부드럽게 흘러간다. 장흥은 산, 바다, 강과 호수가 모두 있는 땅이다. 바다로부터 지구의 맥박 소리를 듣고, 천관산과 제암산과 억불산의 넉넉한 품 안에서 위로받는다. 오래된 나무의 삶을 스승 삼아 더불어 사는 지혜를 배울 수 있는 땅. 장흥에서 시간은 느리게 흐른다.

# 長興'

# 오래된 나무를 만나는 곳,

## 오래된 나무들을 만나는 곳, 우드랜드

장흥에는 오래된 나무들이 많다. 오래된 나무들을 경배할 줄 아는 사람들이 많다는 뜻이기도 하겠다. 억불산 자락의 편백나무 군락도 오래된 나무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이다. 억불산은 518m의 그리 높지 않은 산이지만 장흥읍을 가까운 곳에 두고 품고 있다. 우드랜드는 억불산 자락에 자리한 20만평에 이르는 조림숲이다. 40여년 전 한 조림가가 심은 나무들이 지금은 하늘 높은 줄 모르는 키 큰 나무들이 됐다. 장흥군은 이 편백나무 숲을 휴양림으로 꾸미고 우드랜드로 이름을 바꿔 달았다. 통나무집과 체험공간들이 나무 숲 곳곳에 자리했다.

숲으로 들어서면 쪽뽕은 나무들이 도열해 맞는다. 코가 먼저 숲을 알아챈다. 숨을 쉬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상기시켜준다. 산책길에 깔린 톱밥을 밟으며 걷는다. 푹신푹신하다. 우드랜드 곳곳에 숲치유 체험장·목재 전시장·목공예 체험장 등 체험시설과 12채의 황토한옥·통나무집·황토흙집이 들어섰다. 편백노천탕도 있다. 편백나무가 피톤치드를 가장 많이 내뿜는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지면서 장흥 편백우드랜드에는 아토피 치료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주로 찾고 있다. 편백나무 숲길에서 산책하고 편백노천탕·편백톱밥찜질방 등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오래된 편백숲이 요즘에 와서는 '치유'의 공간이 된 셈이다.

숲속에서 하룻밤을 보낼 수도 있다. 황토한옥과 목조주택 등 다양한 펜션형 체험장을 갖췄다.

우드랜드 근처에 장흥에서만 볼 수 있는 귀한 나무가 있다. 귀족호도나무다. 귀족호도는 장흥에만 있다. 그 중 300년 넘는 귀족호도나무는 장흥에서도 8그루 밖에 없다. 귀족호도박물관을 찾는다면 300년



넘는 귀족호도나무와 각종 귀족호도를 볼 수 있다. 귀족호도 박물관 한편에는 장흥이 낳은 소설가 고 이청준 선생이 자식처럼 아꼈던 동백나무도 자라고 있다.

## 토요일마다 즐거운 축제 - 정남진토요시장

장흥에서 가장 역동적인 곳이다. 활자한 풍경이다. 정남진토요시장. 토요일이면 장이 열린다. 정다운 풍경이 늘 연출되는 장이다. 먼저 가봐야 할 곳은 '할머니 장터'다. 시골에서 손수 기른 푸성귀를 할머니들이 모여 앉아 판다. 슬슬 걸으며 구경하는 재미가 솔찬하다. 귀를 열어 놓으면 구수한 사투리가 걸쭉하게 파고든다. 할머니장터에는 200명이 넘는 할머니들이 장을 연다. 푹푹한 푸성귀들에 정이 한가득 고인다.

정남진토요시장은 장이면서 또한 즐거운 난장이다. 무대에선 노래 자랑이 열린다. 풍물패가 한바탕 흥을 모으면 각설이들이 등장해 구경꾼들의 배꼽을 빼놓는다. 사람들의 즐거운 잔치다. 장기자랑도 진행된다. 계절에 따라 다양한 체험프로그램도 진행된다. 도자기 빚기와 천연염색체험, 물고기잡기, 줄베체험, 굴렁쇠 굴리기는 아이들에게 인기다.

정남진토요시장이 개장한 것은 2005년 7월이다. 평범한 재래시장에 현대적인 옷을 입혔다. 전국 최초로 주말 관광시장을 표방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토요일이면 전국에서 사람들이 밀려온다.

무엇보다 정남진토요시장의 성공 요인은 소고기였다. 전국에서 가장 값이 싼 순수 한우 고기를 마음껏 사고 먹을 수 있다. 먹는 방법



치유의 숲



장흥물축제



토요시장



해양뉴시공원 해상수상기숙

이 매우 독특하다. 일단 즐비하게 늘어선 소고기 특판장에서 원하는 소고기 부위를 산다. 그것을 들고 식당에 간다. 약간의 상차림 비용을 내고 소고기를 마음껏 먹는다.

### 역세들의 향연...그림같은 다도해 - 천관산

장흥이 숨겨두고 있는 장엄한 풍경이 있다. 40만평의 광활한 역세 평원이 만들어내는 빛의 출렁임. 장흥 천관산이 내어주는 가장 절정의 장관이다.

천관산의 높이는 해발 723m. 그리 높지 않지만 충분히 든든하고 포근하다. 천관산의 등산로는 여러개다. 천관산 도립공원으로 오르는 길은 아래서부터 시작하는 등산로여서 조금 힘에 부칠 수 있다. 가장 빠른 코스는 탐산사에서 오르는 코스다. 경사가 가파른 구간이 일부 있지만 한 시간 정도 산에 오르면 주능선과 만난다. 거기서부터는 온통 역세밭이다. 유유자적 걷는 길. 하염없이 앉아있어도

좋은 길들이 펼쳐진다.

햇살을 받아 빛나는 은빛 바다가 펼쳐진다. 정상 연대봉에서 구정봉까지 4km에 이르는 역세군락지. 산 밑 바다로부터 불어오는 바람이 거대한 은빛 일렁임을 만들어낸다.

천관산은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산이다. 천관산 능선에 오르면 다도해가 펼쳐진다. 천관산은 기암괴석들로 독특한 풍광을 선사한다. 천관산의 바위들은 하나같이 아름답다. 매끈해서 예쁜 게 아니라 모나고 비뚤어지고 기이해서 예쁘다.

탐산사로 내려오면 문학공원이 조성돼 있다. 장흥의 많은 문인들이 천관산을 자신들의 영혼과 육체에 우뚝 세웠다. 송기숙, 이청준, 이승우, 이성관, 이대흠 등 많은 소설가와 시인들이 천관산 산자락에서 나고 자랐다. 하산 길에 문학공원에 들려보는 것도 좋겠다. 문학공원에는 이들의 육필원고 등을 볼 수 있다.

## 역세들의 향연... 천관산

# 長興

# 食,

## 장흥과 함께하는 맛있는 여행

### '된장물회' 를 아시나요? - 된장물회

아는 사람은 별미 중의 별미로 친다. 된장물회. 장흥의 고유음식이다. 재료는 청정 득량만에서 갓 잡은 생선이다. 어린 범치의 속살이나 새끼농어, 새끼돔 등 싱싱한 생선이면 뭐든지 재료가 된다. 주로 어린 농어나 돔을 쓴다.

된장 국물은 약간 시큼하게 익은 열무김치와 된장, 고추장에다 풋고추, 오이, 양파, 마늘을 썰어 넣고 깨, 설탕, 식초, 물 등을 넣어 버무린다. 된장을 풀어 넣는 것은 생선에서 나는 비린내를 없애기 위함이다.

음식의 맛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된장과 식초. 된장은 집에서 담가 잘 익은 향기로운 고유 된장을 쓴다. 식초는 매실과 막걸리를 숙성시켜 만든다. 시원한 맛을 더하기 위해 배를 채 썰어 넣기도 한다. 된장물회는 맛이 담백하고 시원하다.

### 찬 바람에 굴익는 마을 - 남포마을

바람 매섭고, 눈 쏟아지는 겨울이면 '남포' 라는 지명이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된다. 장흥의 작은 바닷가 마을인 남포에 겨울이 오면 사람들이 찾아든다. 숯불이나 장작불 위 철망에 생굴을 올려놓고 뜨겁게 튀는 갯물을 목장갑 낀 손등으로 막아 가며 소주잔을 기울이고 싶어서이다. 남포는 사방이 굴의 천국이다.

겨울의 남포에는 비닐하우스가 쳐진다. 해변에, 골목에 그리고 언덕배기에 쳐진 그 비닐하우스는 저녁 내내 장작연기를 뿜어낸다. 그 안에 굴이 익어가는, 찜 꼴깍 넘어가는 향이 섞여 있다. 참나무 장작불을 지피고 여럿이 황토 화덕 주위에 둘러앉아 먹는 굴이다. 남포의 굴은 모두 자연산 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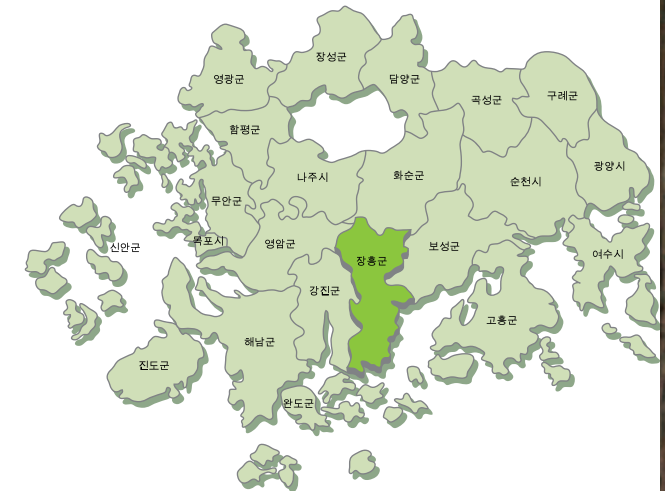


### 장흥의 별미 - 장흥삼합

삼합하면 홍어와 삶은 돼지고기, 목은지를 떠올린다. 그러나 '장흥삼합'은 다르다. 장흥의 특산물 셋을 합쳐 절대 미각을 감동시키는 새로운 삼합이 탄생했다. 장흥삼합은 표고버섯과 키조개, 한우다.

키조개와 가장 궁합이 잘 어우러지는 육류가 소고기다. 거기에 장흥의 특산물 표고가 만나 입을 즐겁게 한다. 장흥은 봄이 오면 참나무에서 표고가 자라고, 득량만 뺨에서는 키조개 양식장의 수확이 시작된다. 장흥 한우도 몸집을 불린다.

표고버섯과 키조개, 장흥 한우를 구워 같이 소금 기름에 찍어 먹는 것이 장흥 삼합이다. 장흥삼합은 표고버섯의 은은한 향, 키조개의 담백함, 한우의 육즙을 한번에 맛볼 수 있는 특별한 요리다.



광고 카피 하나가 온 국민의 마음에 제대로 꽂힌 적이 있다. '부자 되세요' 부자는 단지 '돈'을 뜻하는 단어가 아니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치열한 자기계획을 세우고, 그 꿈을 끈기 있게 밀어 올리는 작업이 필요하다. 부자는 작게는 꿈을 이룬 사람과 동의어였고, 크게는 행복의 다른 이름이었다.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을까? 부자가 된 사람들은 어떤 실천의 과정을 거쳤을까? 세상의 부자들이 거기 이르기 위해 걸어간 길은 모두 다르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부자들에게서는 하나의 공통분모가 발견된다. 그것은 '실천'이다. 태산은 티끌에서 시작하고 바다도 빗방울이 모인 결과다. 부자가 되려면 꼭 해야만 하는 10가지 실천법, 궁금하지 않으세요?

# 사소한 실천, '부자 되는 습관'



## 감사하는 태도를 길러라

무엇이든 고마워할 줄 아는 사람에게 기회가 열린다.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고맙게 여기는 것 세 가지. 그 날 하루 동안 특별히 좋았던 일 세 가지. 좋았던 일들을 기록으로 남기면 같은 일상이지만 행복감이 크게 증가한다. 낙관의 힘을 길러라.

## 지갑에 아기 사진을 넣고 다녀라

웃는 아기 사진을 지갑에 넣어 가지고 다니면, 잃어버린 지갑이 되돌아올 확률이 약 30%나 증가한다. 아기의 큰 눈과 납작한 코는 남을 돌보고 싶은 충동을 만들어낸다. 아기 사진만큼 아빠의 다짐을 단단하게 만드는 게 또 있을까?

## 부엌에 거울을 걸어놓아라.

많은 음식을 마음대로 먹게 하면서 그 사람 앞에 거울을 걸어두면 어떻게 될까? 건강에 좋지 않는 음식을 먹는 양이 무려 32%나 줄어든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면 몸을 의식하게 된다. 건강 없는 부자는 아무 소용이 없다.

## 사무실에 식물을 놓아두어라

사무실에 식물이 있으면, 남자 직원의 경우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내놓는 건수가 15%나 증가한다. 여자 직원은 문제에 대해 훨씬 독창적인 해결책을 내놓는다. 식물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기분을 좋게 해주며, 창조성을 자극한다.

## 호감을 얻고자 하는 사람의 어깨를 가볍게 만져라

상대방의 어깨를 가볍게 만지면, 부탁을 들어줄 가능성이 크게 높아진다. 그 행위가 무의식적으로 높은 지위를 나타내는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어깨를 가볍게 만질 때 나이트클럽에서 춤을 추자는 제의를 상대방이 받아들일 확률이 20%나 높아지고, 거리에서 낯선 사람에게 전화번호를 가르쳐줄 확률도 10%나 높다.

## 관계에 대한 글을 써라

약간의 짬을 내서 배우자나 애인과의 관계에 대한 깊은 생각과 감정을 종이에 써라. 헤어지지 않고 함께 살 확률이 20%나 높아진다. 표현적 글쓰기는 서로 대화를 나눌 때 더 긍정적인 말을 사용하게 만들고,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낳는다.

## 상대가 거짓말 할 것 같으면, 이메일로 용건을 말하라고 하라

거짓말을 탐지하는 데 가장 확실한 단서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에 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자세한 이야기를 피하고 음이나 아 같은 단어를 많이 사용한다. 자신을 언급하는 단어(내가, 나의, 나를 등)를 회피하는 경향도 짙다. 전화보다 이메일을 사용할 때 거짓말을 할 확률이 20%정도 낮다. 한 말이 기록으로 남아 취소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 아이를 칭찬할 때는 능력보다 노력을 칭찬해라

능력보다 노력을 칭찬하면, 결과에 관계없이 열심히 노력하는 자세가 생긴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진다. 어려운 문제도 겁내지 않고 도전하려 하고, 문제 푸는 것을 즐기며, 혼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 목표를 달성한 모습이 아니라, 노력하는 모습을 상상하라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현실적인 단계들을 밟아 나가는 자신의 모습을 시각화하는 사람들은 그저 꿈이 실현된 모습을 상상하는 사람들에 비해 성공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 특별히 효과적인 방법은 제3자의 관점을 취하는 것이다. 3인칭 관점에서 자신을 시각화하는 사람은 1인칭 관점에서 시각화하는 사람보다 성공할 확률이 약 20%나 높다.

## 자신의 유산을 생각하라

자신의 장례식에 참석한 가까운 친구를 상상하면서 자신이 남긴 개인적 유산과 직업적 유산에 대해 잠깐 상상해보라. 그러면 장기적 목표를 다시 확인하고, 목표 실현에 얼마나 다가가고 있는지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된다.

# News

## 여수경도 해양관광단지 안전점검의 날

공사는 올해 5월 25일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조성사업 현장에서 안전관리체계 및 실태 점검을 위한 대대적인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김주열 사장은 골프 코스 및 콘도 공사현장을 점검하고 현장별 추진현황 및 안전관리계획을 보고받았다.

김 사장은 배수로의 안전상태 등 각종 시설물의 이상 유무를 직접 확인하고 현장중심의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해 단 한건의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공사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특히 공사관계자 및 현장근로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재해·무사고를 기원하는 안전결의 구호제창 및 중대재해 근절 선포식도 함께 진행했다.



## 전남 미래가치 디자이너 비전 선포식

공사는 지난해 12월 17일 해남 땅끝호텔에서 공사 임직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매출 5,000억 원 달성을 위한 비전 2020선포식'을 갖고, 구체적 실천방안을 담은 '중장기 경영전략'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공사는 사업구조와 재무구조, 마케팅,

인력, 경영시스템 등 총 5개 부문 20개 집중 실천과제를 마련하고 '고도화-성숙기-목표 실현'이라는 3단계 로드맵을 설정했다. 특히 공사는 조직 구조를 마케팅 기능을 강화한 '세일즈 조직'으로 개편하는 등 성과위주의 조직 운영 계획을 밝혔다.



## 벨솔트, '서울 G20 의장회의' 납품

공사의 천일염 브랜드인 '벨솔트'가 지난 5월 열린 '2011 서울 G20 국회의장 회의' 행사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특산물로 선보였다.

5월 18일부터 20일까지 서울에서 열린 '2011 G20 국회의장 회의'에 참가한 세계 26개 국 의회 정상 및 관계자를 위한 선물로 공사의 천일염 제품인 '벨솔트' 350개가 납품된 것.



'벨솔트'는 이날 국회 내 전통 한옥인 '사랑재'에서 열린 공식 오찬에서 각 국 참가단에게 한국 대표 특산물로 전달됐다.

'벨솔트'는 청정 갯벌 위에 바닷물을 끌어들여 바람과 햇볕으로 수분을 증발시키고, 갯벌을 다져 만든 결정지(토판염전)에서 생산한 전통 소금이다.

## 2011년 신입사원 임용식

공사는 지난 3월 21일 신입직원 임용식에 가족을 초청한 환영행사를 열어 눈길을 끌었다. 이날 공사 10층 대강당에서 열린 '가족과 함께 하는 신입직원 임용식'에는 김주열 사장을 비롯해 신입 직원 6명과 부모·친지 등 가족, 공사 임직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임용식에서 가족들은 신입 직원에게 공사 배지를 달아줬고, 신입 직원은 부모님께 '행운이 찾아온다'는 만천홍 꽃 화분과 첫 명함을 전달했다.

이어 임직원 및 가족과 기념촬영, 공사 현황에 대한 브리핑 순으로 진행된 임용식은 직원 전체와의 오찬으로 끝을 맺었다.

공사가 최근 실시한 2011년도 신규 직원 공개채용에는 6명 모집에 180명이 지원, 평균 30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 News

## 내고장 전남사랑 운동 협약식

'녹색의 땅' 전남도와 함께 전남개발공사 임직원 100여명은 '내 고장 전남사랑운동'에 참여했다. 3월 11일 전남도청 행정동 9층 정약용실에서 박준영 전남지사와 함께 전남개발공사 김주열 사장, 이종승 한국일보 사장, 박지우 KB국민카드 부사장, 김기수 KB국민은행 호남남지역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내 고장 전남 사랑운동' 협약식을 체결했다.

내고장 카드는 가입 시 1계좌에 1만원과 사용액의 0.2%가 기금으로 적립되며, 이 기금은 지역의 인재육성장학기금과 체육인재육성장학기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 해남땅끝호텔 1등급 인증 현판식

공사가 위탁 운영하고 있는 해남땅끝호텔이 지난 4월, 1등급 관광호텔로 공식 인증받았다. 땅끝호텔은 한국관광호텔업협회의 등급심사에서 1000점 만점에 700점 이상을 받아 1급 호텔 자격을 취득했다.

관광호텔 등급심사는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이 해당 호텔의 서비스 상태, 건축·설비·주차시설, 전기·통신시설, 소방안전 상태, 소비자

만족도 등 5개 분야 100여 가지 항목에 대한 세부 평가로 이뤄진다.



## 대학생 대상 첫 기업탐방

공사는 올해 8월 26일 대학생들의 취업에 필요한 기업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광주전남 지역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첫 기업탐방 행사를 실시했다. 전남대와 조선대 재학생을 주축으로 한 '대학생 기업탐방단' 30여 명은 26일 공사를 방문하고 각종 사업추진 현황, 근무여건 및 인재채용 방식 등에 대한 다양한 질문을 쏟아냈다.

특히, 이날 행사는 대학생들의 단순 방문이나 견학이 아닌 'CEO와 만남의 시간'을 비롯해 '입사선배와 대화시간', '사업현장 답사' 등 직무위주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실질적으로 취업에 도움이 되는 기회가 제공됐다.

참가자들은 회사소개 동영상 시청, 공사 현황 전반에 대한 브리핑 청취 및 질의, 신입사원 합격사례 청취, 김주열 사장과 대화의 시간 등을 가진 뒤 도청 전망대, 김대중 광장, 도립도서관 등 남악신도시의 시설과 발전상을 둘러봤다.

## 혁신도시 부지 매각 1674억 '대박'

공사는 지난 3월 30일 서울시 중구 (주)부영 본사에서 김주열 공사 사장과 이종근 부영주택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공동주택과 골프장 용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부지는 공사가 분양 중인 혁신도시 내 공동주택용지 29만941㎡(4필지)와 골프장 용지 75만 3586㎡ 등 총 104만4527㎡로, 금액으로는 1674억 8800만 원에 달한다.

2004년 공사 설립 이래 단일 계약 건으로는 최고 실적이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민간건설사가 혁신도시 내 공동주택 용지를 대규모 사들인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이를 혁신도시 분양의 청신호로 해석하는 이들이 많다.



## 사랑의 쌀, 연탄 나눔행사

공사 '나눔이 봉사단'은 지난해 12월 9일 연말 불우이웃 돕기에 나섰다. 목포시 죽교동·양동·산정동 일대 저소득층 세대들에게 연탄을 배달했다. 이날 공사 임직원 20여 명은 1년간 급여 끝전을 모아 마련한 성금으로 연탄 1만 장(600만 원 상당)을 구입해 어려운 이웃 50세대를 도왔다.



## 클린 남악신도시환경 캠페인

공사는 4월, 7월 남악신도시 대죽도 인근 일대에서 직원 2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클린 남악신도시 환경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캠페인은 공사의 사회공헌 활동 일환으로 실시됐으며 직원들은 오물수거 차량 등을 동원해 쓰레기 수거, 시설물 점검 및 청소, 하천 정화



활동 등을 벌였다.

전통과 현대가 아름답게 공존하는 전남의 심장, 남악신도시가 항상 쾌적한 공간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클린 환경캠페인은 수시로 진행되고 있다.

## 불우 이웃돕기 '십시일반'

쌀 한 포대에 사랑이 담겼다. 공사 '나눔이 봉사단'은 지난해 12월 9일 연말 불우이웃 돕기에 나서 독거노인과 결식아동을 대상으로 쌀과 생필품을 전달했다. 특히 공사 임직원들은 국민기초수급자와 독거노인, 결식아동 등을 대상으로 무료 급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목포시종합사회복지관'(목포시 산정동 소재)에 20kg의 쌀 100포(400만원 상당)를 지원했다.



## 광주조달청, 조달서비스 우수기관 선정

공사가 지난 3월 28일 광주지방조달청으로부터 '2010년 조달서비스이용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조달청은 이어 재무회계팀 김성수 과장을 유공 공

무원으로 선정해 트로피 및 표창장을 수여했다.

조달서비스이용 우수기관은 조달청을 이용하는 공공기관 중 조달사업 이용실적과 조달실적 신장률, 나라장터 활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된다.

공사는 지난해 조달사업 실적이 846억 원으로 2009년보다 무려 1043% 신장돼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유공직원으로 선정된 김성수 과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업무를 위해 조달청 나라장터를 적극 활용 하는 등 조달행정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전라남도  
도지사  
품질인증

전라남도 JeollaNamdo 전남개발공사 JEONNAM DEVELOPMENT CORP.

천일염의 세계적인 명품화  
전남개발공사가 시작합니다.

# Pearl Salt

펄솔트

Pearl Salt is crystallized on the soil rich with minerals and microorganisms. It has special aroma and taste.  
All Natural Premium Salt



토판천일염 | 토판천일염은 자연갯벌을 다져 만든 토판에서 전통 방식으로 생산한 세계 최고품질의 자연소금입니다.



천일염



토판천일염 미용소금

전남개발공사는 천일염 명품화를 선도하는 전라남도 지방 공기기업입니다.

- 청정 바다와 갯벌의 풍부한 미네랄이 고루 담겨있습니다.
- 전남개발공사가 직접 공급해 안전하고 믿을 수 있습니다.

주문전화 : 080-280-1001 홈페이지 : www.ppearlsalt.com (수신자부담)

Together with you!  
성공의 동반자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전남미래가치디자이너 | 전남개발공사 |

### 택지개발지구 공급계획

사업지구	용도	필지수	공급방법	공급가격(백만원)	공급(예정)시기
남약신도시	단독주택	53	수의계약	92~255	수시
	블록형단독	4	수의계약	4,598~9,515	수시
	중심상업	2	수의계약	1,662~1,672	수시
	일반상업	2	수의계약	738~10,631	수시
	업무시설	12	수의계약	699~9,482	수시
	주상복합	1	수의계약	8,156	수시
	체육시설	1	수의계약	7,099	수시
	의료시설	1	수의계약	14,113	수시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블록형단독주택	3	추첨	감정가격	12년이후
	단독주택	166	추첨	감정가격	11.9월이후
	근린생활	36	경쟁입찰	감정가격	12년이후
	상업용지	46	경쟁입찰	감정가격	12년이후
	주차장	11	경쟁입찰	감정가격	12년이후
	주유소	2	경쟁입찰	감정가격	12년이후
	종교용지	2	추첨	감정가격	11.9월이후
장성황룡행복마을	단독주택용지	102필지	수의계약	105~203	수시

### 산업단지 공급계획

사업지구	용도	필지수	공급방법	공급가격(백만원)	공급(예정)시기
장흥해당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58필지	수의계약	770 ~ 6,461	수의계약
대불주거단지	산업시설용지	8필지	수의계약	3,905 ~ 7,542	수의계약
	상업용지	7필지	수의계약	95 ~ 781	수의계약
	주차장용지	3필지	수의계약	408 ~ 1,023	수의계약

※ 문의처 : 전남개발공사 고객맞이팀(수신자부담전화 080-285-0600)